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FEB 5 1982
130 St. George Street
6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38 1982년2월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February 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유 방 현

중공하키 국가대표선수 최정문군 호소

"한국사는 외삼촌 찾아주오"

[덴버-LA지사 강성구기자] 中共아이스하키 국대대표팀의 골키퍼인 한국인선수가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동계올림픽경기 전지훈련차 미주순회 국제친선경기를 벌이고 있는 중공 아이스하키팀의 골키퍼인 최정문(庭文)군(24·中共 횡빈 市道里 田地丁 46號)은 『나는 한국인입니다. 매일 하르빈에서, 한국에서 방송되는 가족찾기등의 방송도 듣고있지만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는 외삼촌을 찾을 길이없겠읍니까』라고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다. 27일 하오 덴버공항에서 이팀의 일행 22명과 함께 기자와 만난 최군은 『외삼촌인 朴丙鎭씨(54세)에게 수차례의 편지도 내긴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수차례 편지내도 감감…
코치 이만기씨도 한국인

최군은 아버지 최두륜씨(68세 사망)와 어머니 박귀진(60세)씨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로 어머니 박씨는 일제통치당시 일본으로 유학간후 아버지 최씨를만나 결혼, 이후 하르빈으로 건너간 어머니에의해 하르빈에서 출생했다.

하르빈고교때부터 아이스하키 선수생활을 시작, 올해 6년째 중공대표팀선수생활을 해온 최군은 이번 방미길에는 꼭 한국인을 만나 외삼촌을 찾을수 있는길을 마련해 보겠다고 결심 했다는것.

지난 1월15일 중공을 출발, 19일부터 24일까지 미시간주 베틀크리크 시에서 중공, 미국, 일본, 캐나다4개국 아이스하키 친선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후 26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올림픽 훈련센타에 들른길에도 최군은 한인을 만나기위해 유심히 살폈다고한다.

이때마침 고대 교수이며 국제마라톤학술세미나관계로 올림픽 훈련센타에 들른 공웅대 박사를 만나게 된것.

식당에서 마주친 공박사에게 다가간 최군은 「혹시, 한국사람이 아니냐」고 말을 건네고 자신도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군은 중공팀의아이스하키 선수로 이팀에또 한명의 한국인이 있다고말하면서 코치 이만기(49세)씨를 소개했다.

지난 81년에는 시합차소련에도 갔었던그는 한국노래를 듣고싶다고 말해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회에 연락, 박인덕 한인회장을비롯한 한인인사들이 달려와 이미자의 노래등이 담긴카세트 테이프집과 한국인형등을 전달했다.

같은 한국인으로 올해대표팀 코치생활 10년째인이만기씨(하르빈 사범대학체육교사)에 의하면 최군은 일본에서도 스카웃 교섭을 받은일이 있는 유망한 선수이며 현재 중공의 ABC의 3개그룹으로 나누어진 18개 대표팀중에 베스트멤버로 활약하고 있다는것.

중공의 아이스하키 수준은 세계랭킹 16위이내로동양에서는 최강팀.

—오는 84년 유고사라예보 동계 올림픽에도 출전이 확실시 되고있다.

1미터73cm키 180파운드의 건장한 몸집을가진 최군은 이날 덴버공항을 떠나기직전「13남매의 맏이인 어머니에 바로밑이 찾고있는 외삼촌이며, 외삼촌 박병진씨는 6.25동란당시 부산에서 가장큰 정미소를운영했다고 어머니에게 전해들었다.」고 말하며 「6.25때는 북한군이 부산까지는 내려가지 못한것도 안다」고 한국사정을 소상히 말하기도 했다.

이팀은 1일중공으로 귀국한다.

◇중공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의 한국인—「나는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부산에 살고 있는 친척을 찾을길이 없겠느냐고 호소한 최정문군(왼쪽). 오른쪽은 10년째 중공팀을 이끌어오고있는 이만기 코치. (덴버공항에서 —강성구기자찍음)

◇주말동안 온타리오주 남부를 휩쓸은 폭설과 눈발을 휘날리는 바람, 군데군데 서버린 차들로 교통이 혼잡해지자 수잰·햄필양은 아예 스키로 동원했다. 31일 '본포트 로드에서. ◇관련기사 2면

한국수출증가율 부진
달러가치 상승등 원인

(서울 30일=연합) 한국은 작년도 상품수출에 있어 선진산업국에의 의존도를 줄였다고 대한무역인협회가 30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대미수출은 그 전년도보다 20.7%, 대일수출은 13.3%, 유럽경제공동시장(EEC)에는 2.6%가 각각 증가했으나 예년에 비해 부진한 증가율이다.

한편 작년도 대남미수출은 64.2%로 껑충 뛰었으며, 중동, 아프리카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증가율은 각각 26.3%, 26.7%및 27.5%였다.

수출구조의 변화로 미국, 일본및 유럽경제공동시장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종전보다 3% 줄어 작년도 총수출고의 55.7%를 차지했다.

동협회는 이같은 변화는 미달러의 가치상승과 한국정부의 수출시장 다양화를 위한 노력에 우선적으로기인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사증면제
90일이내 여행

한국은 "남미의 콜럼비아와 사증 면제협정을 맺었다.

28일 토론토영사관에의하면 한국과 콜럼비아는영리나 일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양국인의 여행은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수있게 됐다.

이로써 한국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콜럼비아에 90일기간내 비자없이 자유롭게 여행할수 있으며 콜럼비아여권 소지자도 한국여행에 상응한 조처를 받게된다.

社說

참여의식
— 한인회총회의 교훈

1월23일 열린 토론토한인회 총회는 인원동원에 실패함으로써 그에 따른 산적(山積)된 안건처리등에 범교민적 의사반영을 얻지못하는 내실(內實)없는 모임으로 그치고 말았다.

해마다 1월하순 열려, 묵은해의 결산과 새해예산및행사계획 통과등 비중 큰 안건을 다루는 정기총회는이곳 한인사회 1년의 청사진·기상도 구실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중차대한 총회에 3만교포중 불과 100명의정원도 채우지 못해 허덕여야 했다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며, 혹한을 무릅쓰고 참여의식에 철한 열성회원들이 성원을 기다려, 「시간을 돈으로 간주」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3시간씩이나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으니 총회참석 회원들의 끈질긴 성의와 인내심에 머리가 숙어진다.

5, 60명이 3시간을 앉아서 허비했다면 도합 150시간 이상의 시간낭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물론 집행진은 예상외로 출석상황이 저조하자, 전화통에 매달리는등 서둘렀으나 응급책이 쉽게 통할리 만무다. 무엇보다도 일부 한인회 관계자들(이사진등)의 총회불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터에 어찌 일반회원의 참석을 기대한단 말인가!

한인회의 모임중 회장단선거와 정초의 1년살림 설계모임의 둘은 가장 중요한 총회로서 절대다수의 회원이 달려와서 진지하고 열성있게 우리의 대표기관을 꾸려 나가는데 머리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만에 육박하는 토론토교민중 한인회원은 약 1만명은 될 것이다. 그 숫자의 100분의1에 불과한 성원(100명)도 모이지 않아 참석자들이 3시간이나 정원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그토록 참여의식이 희박해서야 어찌 우리의 대표기관인 한인회를 살리고, 나아가 한인사회의 보람찬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권외에 물러서서 팔짱끼고 "한인회 운운…" "한인사회 운운…"하고 핀잔 아니면 차가운 비판을 일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어쩌자는 심산인가?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에 회원 각자에게 굳이 권하는 바는 넓은 아량과 협동심을 지녀달라는 것이다.

즉 모여야 일이되고, 뭉쳐진 강한 힘이 생기는 것이니 우선 모이고, 다함께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대어 한인회·한인사회의 잘 살 길을 거론하고, 모색하는 성의에 인색지 말아야 하겠다.

한인회가 못되어서 구성원 개개인이 유쾌할리는 결코 없을 것이며, 한인회가 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포 개개인도 어깨가 펴지며, 문화적·민족적 위치도 이나라에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굳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참여의식없이 단체생활은 성립될 수 없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인회 자체의 이미지 쇄신을 촉구코자 한다.

모이지 않는다고 회원들의 무관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의 존재가치와 존재의미 정립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람은 매력을 느껴야 관심을 품고, 관심이 쏠리는 곳에 애착(참여)이 가게 되어 있으니, 교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무엇에 앞서 매력있는 단체, 교민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진 구성원들은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출석부진의 예방책으로 집행부는 개인사정으로 총회참석 불가는 회원들의 「서면위임장」을 미리 받아두고, 「전화위임」도 받아두고 하여 성원미달 사태에 대비했어야 했고, 참석회원들이 앉아서 기다리다 못해 가버릴 경우 출구에서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도 출석인원 확보의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지루한 시간을 보낸 열성회원들을 세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한 것은 집행부로서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 응급조처로 영사관에 달려가 모국필름이라도 빌려와 영화상영을 하든가, 즉흥쇼(노래자랑)등으로 무료한 시간 메우기 서비스를 했어야 옳았다.

이상 열거한 사항들은비판에 앞서, "보다 나은 앞날"의 현명한 회운영을 위한 제언임을 밝혀둔다.

그날 안건처리 과정에서 일방통행같은 집행부 독주경향도 엿보였음은 앞으로 시정돼야할 쓴 교훈이 되어준다(토론토-한국일보 1월27일자).

①전회장 당시의 증빙서류등 미비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는 경과보고이지 감사보고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전교민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집행부로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재무관계 정식인계를 받아야 하며, 끝까지 불응할 경우, 법에 호소해서라도 결말을 지어야 전체회원 앞에 떳떳한 처결이 될 것이다. 공공단체의 경리문제일수록 구성원들 앞에 항상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비로소 회비 자진납부등 협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②회관이전문제 처리도 소홀하게 다루어진인상을 주고 있다. 너무 장시간 앉아있은 탓으로 참가회원들은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이날 결정을 본대도 전회원수에 비해 100분의1(100명)의의사에 불과했을 것이다. 아뭏든 그 처결권은 실무팀(관리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 총회가 뽑은 수명의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있는 결정을 보도록 꾀했어야 했다 하겠다.

발전성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묵은 상처에 집착할 일은 아니나, 그것을 앞날의 발전에 거름으로 삼는 슬기를 지니고 있다.

오늘의 예금금리 (1월25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4.5%	13.25~14%
보통예금 (매일저축)		13%	12%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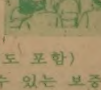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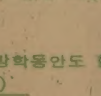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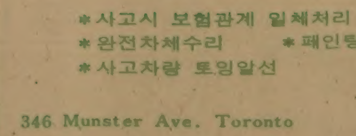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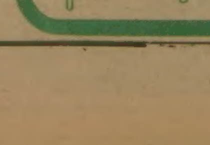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7시30분, 토 : 9시~2시까지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차체수리 * 페인팅
*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 세 호
(B)231-6951
(R)742-5406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OPEN HOUR
월~목 11:30~11:00 P.M
금 11:30~2:00 A.M
토 1:00P.M~2:00A.M
일 1:00P.M~10: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서티)
전화 : 977-3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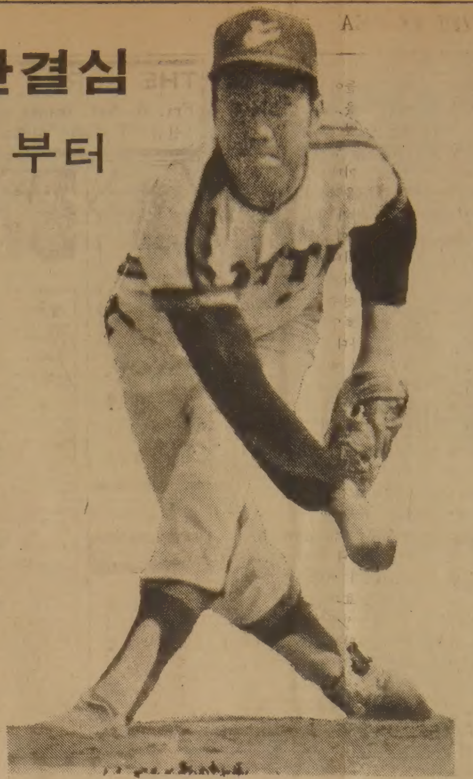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며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2ND CLASS MAIL NO. 524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최동원 블루제이스 입단결심

서울 세계야구 치른뒤 83년부터



◇블루제이스 계약분쟁중인 최동원투수

(서울 29일—본사전화)

국내야구최고의 투수인 최동원(26)이 오는 9일 서울의 제27회세계아마 야구선수권 대회를 치른후 토론토·블루제이스에 입단, 83년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게 된다. 최동원의 매니저역할을 맡고있는 아버지 최윤식씨는 28일, 「세계대회가 끝나는대로 동원이를 토론토로 보내겠다」고 메이저리그진출의 뜻을 밝혔다.

최윤식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있은 토론토·블루제이스와의 계약과 계약파기소동후 꾸준히 블루제이스측에서 접촉해와 12월 22일 부산으로 찾아온 블루제이스의 인사부장 엘리어트·왈리씨에게 계약금20만달러, 연봉 15만 달러의 2년 계약조건을 제의,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고밝혔다.

이 계약조건은 지난해 9월 처음 제시되었던 61만달러(개인상금포함)의 4년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

최윤식씨는 새로 창설된 국내프로야구에서의 활약도 고려해보았으나, 최근 최동원(경남고졸)의 연고지 프로팀인 롯데측 으로부터 5년계약금 2천만원, 연봉 2천4백만원(프로위원회가 제시한 특급대우) 으로 제의받아 거절 했다고 말했다. 최동원의 병역문제는 77년슈퍼·월드컵우승, 80년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등 국가대표선수로서의 실적으로 이미 지난 12월 우수선수 병역의무 특례규정의 수혜대상자로 추천되어있어 쉽게 해결될것으로 보인다.

최윤식씨는 「이땅에서자란 야구선수의 사명감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는 반드시 출전토록 하겠다. 외국팀들로부터의 항의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지난해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블루제이스측은 최동원이 2월1일까지 토론토에도착, 82년시즌에 참가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최동원측은 세계대회를 마치고10월 1일까지 토론토에 가겠다고 고집, 최의 입단일자에 대한 홍정에 따라 계약내역은 어느정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동원은 현재 국가대표팀 대만 전지훈련에 참가중이다.

최윤식씨는 「아마추어대표선수로서 좋은성적을 올리는 것이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듯이 전통깊은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 한국인선수로 활약하는 것도 최동원개인뿐 아니라 한국야구전체의 명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같은 소식에대해 지난 12월중순 한국을 재차 방문한바 있는 블루제이스 엘리어트·왈리인사부장은 1일 "최측과 만나 재협상을 벌였으나 최선수측이 주장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면서아직도 작년 9월의 계약이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3일 프로리다에서 거행되는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블루제이스는 최의비행기표를 보낼것이며 전지훈련에 참가할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왈리부장은 "내년도 시즌에 토론토에 오겠다는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다. 최동원은 이미 아마자격을 잃었으므로 더이상 국제아마야구대회에는 참가치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폭설과 강풍이 몰아친 주말

교통마비, 하이웨이 두절

1일아침 출근길은 주말내 쌓인 폭설을 미처 쓸지 않아 여기 저기 빠져 나오지 못한 차량과 시동이 잘 안돼 버려진 차들로 혼잡스러웠다.

토론토시는 31일 밤새눈 치우는 차를 동원, 주요간선도로의 눈은 어느 정도 치웠으나 골목이나 차량의 운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리의 눈은 그대로 쌓여있어 많은 차들이 빠져서 나오지 못해 를 먹었다.

주말인 30, 31일 이틀간 온타리오 남부에서는 약25센티미터(10인치정도)의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여기 저기서 하이웨이가 막혔다.

버스와 철도는 물론 항공교통도 운행시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31일 하오 QEW 벌링턴 스카이웨이 근처에서 12대의 자동차가 연쇄충돌 수시간동안 길이 폐쇄 됐고, 12명이 부상했다.

공항서쪽 401서쪽과 딕시·로드에서는 100여대의 자동차가 연쇄충돌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OPP가 발표했다.

날씨도크게 춥지 않았으나(영하 16℃) 눈발이 흩날려 눈앞이 보이지 않았고 길 한복판에 버려진 차들이 많았으나 경찰이 재빨리 출동할 수 없어 교통장애가 컸다.

31일 하오 토론토시당국은 모든 제설차량을 동원, 도로정비에 여념이 없었다.

해밀톤을 왕래하는 그레이·고치와 GO트랜짓을1일 폭설로 인한 운행중단을발표 토론토동지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은 발을 묶었다.

그레이코치회사는 나이아가라 런던, 구엘프행 버스들이 1~2시간 지연된다고 발표했다.

홍순유씨 신임회장

몬트리얼실협총회

◇홍순유씨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지난 16일 마운드·로얄 시티홀에서 열린 82년도 몬트리얼 실업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홍순유씨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은 혹한과 폭설로 많은 회원들이 나오지 못했다. 회장후보로 단독출마, 만장일치로 당선된 홍순유씨는 "실질적으로 협회원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회원들을 위해 비영리 한인도매상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 홍씨는 보성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출신으로 미국 미조리대학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했으며, 76년 몬트리얼로 이주, 식료품상을 경영하고 있다.

초대회장으로 실협의 산파역을 맡았던 조병철씨는 정회수씨와 함께 실협고문으로 추대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유동훈씨를 부회장에 선출했고,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정했다.

농부의딸 남성화

선천적 홀몬이상, 수술비없어

(대전29일=연합)외딴농촌에 살고있는 농부의 딸들이 선천적인 홀몬분비이상으로인해 커갈수록 남성이 돼가고 있지만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손을쓰지못하고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의 요일(22), 요이(18), 요삼(16)세자매는 어렸을때부터 육상에 소질을보여 전국어린이체전에 출전, 달리기선수로 두각을 나타냈고 많은 상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콧수염이나고, 목소리가 굵어지는등점차 남성으로서의 특징을보여 학교에 다니기조차 부끄러워 졌다.

금년들어 무료의료혜택카드를 발부받은 아버지가 큰딸 요일양을 우선 대전의 충남대학부속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은결과홀몬 안드로겐의 과다분비로 점차 남성으로되는 선천적기형으로 판명됐다.

충남대 병원의 윤능수박사는 홀몬생산기관을 수술한뒤 집중적 치료를 받아야 하나 치료비가 엄청나 이들 가족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기원 4680년, 개띠의 해인 82년, 구정을 맞은 샌프란스스코 차이나타운에서는 23일 방년 22세인 스테파니 시우양을 82년 미스 차이나타운 USA로 뽑았다.

은은 왜 폭등·폭락했나?

경제생활과 우리 ⑦

투자상담편Ⅱ 담당 강상옥(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은값의 변동은 금값과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만이 가진 특수성만 지적한다.

은값은 대개 금값의 32분의 1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12월초 금이 US410인데, 이를 비율로 본다면은은 US13선이어야 적정선인데 US8.50 선이다. 이는 금이 너무 비싸든가, 아니면 은이 너무 싸다고 할수있다. 이같은 이유로 은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선물시장을 통한 거래의 경우이고, 은행을 통해서 살 경우 는 은이 US40을 했을 때, 선물시장에서는 5,000온즈에 $96이면 되는 수수료를 $3만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은이 유리하다고만은 할수없다. 이유는 이처럼 은행의 엄청난 수수료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윤을 취하고 팔아야 할 시기에 팔지 않고 더 기다리게 되는데 있다.

은을 $30에 산 사람이 $40까지 올라갈 때 온즈당 $10을 번다면 만족하여 팔 수도 있는데, $4밖에 못번다면 이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어 팔지않고 더 가지고 있게 된다.

값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종국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은값이 79년 US$8에서 US$50까지 금보다 더 큰 비율로 폭등한 것은 금을 오르게한 것과 같은 이유외에 헌트라는 사람이 은의 가격폭등을 원해 선물시장에서 다량의 은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헌트는 이미 73년 부셸당 US$3.50하던 콩을 수개월 사이에 US$15로 올린 다음, 즉시 US$5로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후,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대상을 찾다 은에 손을 댄 것이다.

헌트가 금대신 은을 선택한 이유는 방대한 금시장은 조작할 수 없으나 은은 조작이 가능하고, 용도가 다양, 중요산업 원료이라 값이 비싸도 필요하면 사야 된다는데 착안했다.

결과 헌트는 정부나 기관외에 일반이 소유한 은의 90%까지 소유하게 됐고 값은 US$50까지 폭등했다.

은값 : 금값, 1 :32유지

투기가 조작 $50까지 올라

이렇게 되자, 증권 거래관리소는 일반 투자가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미거래가 이루어진 선물거래외에 새로운 선물거래를 중단시켰고, 5천온즈 거래에 요구됐던 적립금을 $2천에서 $5만으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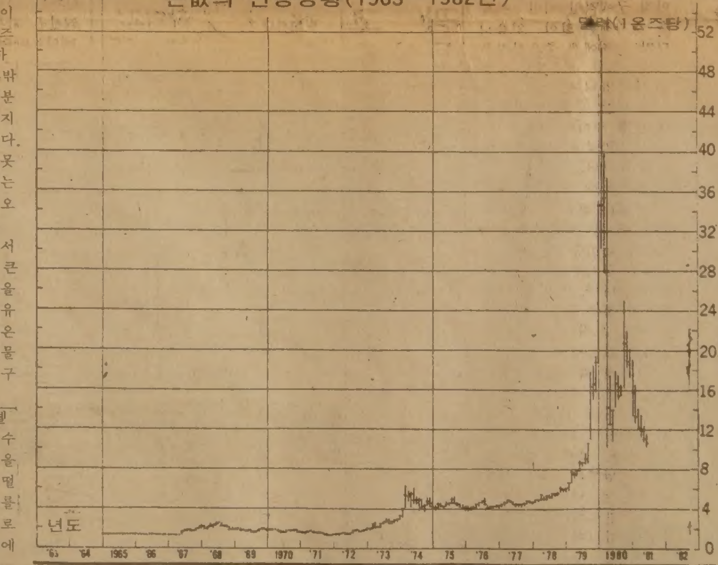
이것은 은을 못사게 유도하는 것이므로 팔겠다는 사람만 나타나 수일사이에 US$35 정도로 팔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떨어졌다.

이 선에서 잠간 거래되다 US$20선, 그후도 계속떨어져 US$8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선물시장을 통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거래할 경우는 은이 US$8에서 US$50까지 올라갔으나 제대로 이윤을 취하고 팔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다. 신문에서 매일같이 금은값의폭등을 보도하고, 이를 사기위해 일반대중이 은행에줄을 설때는 절대로 금·은을 사서는 안된다고 하는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은에 투자해야 하는가? 전법을 공개하는 사람은 없지만다음호에서는 그 예를 하나 소개해 보겠다. (계 속)

은값의 변동상황(1963~1982년)



영하의 추위를 견디는

자동차시동요령 몇가지

수은주가 영하에서 맴돌고 매서운 북서풍이 몰아치면 자동차가 시동(스타트)되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된다.

추운 겨울의 자동차시동을 위한 요령 몇가지를 여기에 적어본다.

★시동(스타트)

오토매틱·캐브레터·초크가 장치된 신형차는 대부분 액셀레이터 페달을 바닥까지 완전히 밟은후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이그니션(점화)스위치(키)를돌리면 시동이 된다.

시동되지 않으면 다시한번 액셀레이터·페달을밟은후 다시 시동을 하면된다. 액셀레이터·페달을 계속밟아 펌핑을 하면 캐브레터등에 개스(휘발유)가 넘치고(floods) 스파크·플러그를 적시어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다.

★뱃터리정비

완전히 충전된 뱃터리는 영하의 기온에 하루밤을놓아두면 성능이 80% 저하된다. 전문가들은 뱃터리·차저(충전기)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4~6앰프(amp) 차저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했다. 대부분의 차저들은 뱃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돼뱃터리의 오버·차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충전된 뱃터리도 날씨가 매우 추울때는 1분정도만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된다. 자동차 오너의 매뉴얼에 날씨가 추울때는 시동하는데대한 요령이 있으면 읽어두는것도 도움이 된다.

날씨가 극도로 추운경우 뱃터리를 차에서 떼어내집안으로 갖고 들어가는것이 좋으며 뱃터리·차저를쓰면 좋다.

★프리히터(Preheater)

오일·딥스틱(엔진안 오일의 깊이를 재는것) 히터를 써서 엔진·오일을 데워놓으면 시동이 쉽게된다. 오일·딥스틱대신 오일·딥스틱·히터를 엔진이 뜨거울때 넣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100와트 오일·히터는 더운오일의온도를 그대로 유지할수는있으나 찬 오일을 데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히터 호스나 레디에이터의 호스에 넣어쓰는 물히터도있다. 엔진속을 순환하는 물을 덥게 하므로 북극의 매서운 추위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거의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므로시간이 걸리는 단점이있다.

이외에 150와트 전구를 켜놓고 후드를 덮어두는것도 방법이다. 엔진을 그런대로 차지 않게는 하지만 오일·딥스틱 히터나 물 히터에 비하면 성능이 나쁘다.

★비상시 대책

뱃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됐는데도 시동이 되지않는 경우 스파크·플러그의 반을 짝수나 홀수로 떼어내면 스타터의 압축력(콤프레션)을 가볍게해 시동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8기통 자동차는 스파크·플러그 4개로 시동이되고 대부분의 6기통은 3개로 시동이 된다.

시동이되면 엔진을 계속 돌려 워밍 시킨후 엔진을 끈후에 빼어낸 스파크·플러그를 다시 끼워넣으면된다.

또 다른 비상대책은 스파크·플러그 3개를 집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금속전주(Metal e lectrodes)을 개스불에 데워 뜨거운 스파크 플러그를 끼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꽁꽁얼어붙은 차도 시동이 된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Pickering— 주매상 $8,000
1700Sq. Feet. 렌트 $1,200
아스킹 $89,000+스탁

● Oshawa— 주매상 $5,000
800 Sq. Feet 렌트 $375
아스킹 $37,000+스탁

● Oshawa— 주매상 $7,000
1,400Sq. Feet. 렌트 $900
아스킹 $80,000+스탁

연락 :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1-683-8154(저녁시간)

스토아 삽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나 기프트 스토아
파실분 연락바람.
주매상 $10,000이상 되는것.
BAGOT REALTY INC. (REALTOR)
—Frank magnus
1-683-8154(저녁시간)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하키카드 입하
* GLAD-GARBAGE BAG(24×10) $35.59
* 초코렛(오·헨리. 체리·브랏썸등) $9.49
* DARE 캔디(캔디 백)12PK $9.99
* LEAF BALL껌 1FREE+10BOX
* PEPPERETTES $14.99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예술의 향기 ⑨

탈리아비니 교수

유 회 자 (씨알학교 교장)

이 아카데미의 마지막콘서트는 탈리아비니 교수의 올간독주회이다. 이 연주회는 트레피오라는 곳에서있게 되는데 이곳은 피스토이아에서 한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있다.

저녁 6시에 모두 지정한 곳에 모였다. 바로 이 아카데미 학장인 피네스키교수 집앞이다.

여름옷을 입고 온 나를 보더니, 그곳은 매우 추운 곳이니 쉐타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 오라고 한다.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누나의(60여세가 넘은 할머니이심)의 쉐타를 빌려주겠노라 한다. 돌층계로 4층을 걸어 올라가니 맨꼭대기에 아파트가있는데, 곁에서 보기엔 우중충한 건물같더니,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진 아파트문부터가 연륜이 가져다 주는 무게를 주는 느낌이다. 현대식으로 가볍게 만들어진 북미의 아파트만 보아온 나에게는 또 한번 역사의 위압에 눌리는 듯했다.

안네·마리 수녀와 함께 할머니의 쉐타 2개를 빌려 들고 버스에 올랐다. 시내를 빠져나온 버스는 큰 하이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만 가는것을 보니, 훌로렌스나 밀라노같은 큰 도시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시골로 가는 모양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꼬불거는 좁은 길로 접어들고, 높은 계곡지대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꼭 한국의 속리산을 찾아드는듯한 기분이 든다.

저녁 7시쯤 목적지에 도착하였을때는 사방이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가고 있었다. 버스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씽하니 맑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

아하, 이래서 쉐타가 필요했구나 생각하며 할머니의 쉐타로 몸을 쌌다. 동네는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깊은 산골에 서있음을 깨달았다. 길건너 두서너채 집이 보일뿐, 이 깊은 산중에별로 크지 않은 교회가 묵묵히 서있는 것이 보인다. 아무장식도 없는 평범한 석조건물의 교회이다. 아마저 아래 여러 동네에서 합작이 되어 이 교회를 사용하는 모양이다.

연주회도 연주회지만, 로마제국의 후손들이 사는이태리의 이 깊숙한 산골짜기까지 찾아와서 구경을하게된 것 또한 감회가 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현대문명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 수백년을 말없이 지켜오는 이 산천, 한국의 수려한 산천이나별다름이 없는 것을 보니 더욱 감개무량했다. 맑은 공기를 실컷 마신 뒤 교회문으로 들어갔다.

제단이 앞쪽에 있는것이 분명한데, 의자가 모두 뒤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 이 연주회를 위하여 특별히 의자의 방향을 모두 돌려놓은 모양이다. 우리는 거의 1시간정도 일찍 갔기 때문에 의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연주할 시간까지 계속 손님들이 들어 오더니 어느덧 5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꽉 차고, 1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뒤에, 옆에, 사이에 서서 연주를 들어야 할 정도로 많아졌다. 이 산골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나? 의문이 날 정도이다. 그러나 탈리아비니 교수의 위치를 안다면 이 정도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리라.

이 교수는 이태리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1인자로 꼽히는 유명한 연주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철저한 학자일뿐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고, 또 표현이 우아하고, 깨끗한 연주가이기도 하다.

이 아카데미를 성장시키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참가자들이 오게끔 하는것이 바로 탈리아비니 교수의힘인 것이다. 그는 학문적바탕에 따른 정통적 연주방법과 표현능력으로 일반청중들을 매혹시킬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학자들, 연구가들, 올간니스트들까지도 매혹시키는 분이다.

이 교수의 힘으로 그동안 흥미를 별로 갖지 않았던 이태리 올간음악을 재발견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또 곳곳에서 연주회의 레파토리로 등장시키게 한 것이다.

이 교수의 힘으로 역사적인 이태리 올간음악이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당시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까지도 또한 재생의 길을 보게 된 것이다.

왜 이분의 연주를 듣기 위하여 이 산골짝까지 찾아와야만 하는가? 로마나, 훌로렌스등 큰 도시에 얼마든지 좋은 올간이 있을텐데?….

오늘 우리들이 들을 올간은 1794년에 만들어진아가티·올간이다. 이 올간이 현재까지 200여년 동안 지내올 때, 올간의 생명이되는 많은 부분들이 낡고, 녹쓸고 찢어지고 하여 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다낡아서 못쓸 것이라고 버리지 않고, 이것들을 먼지를 털고, 나무를 다시 깎고, 우그러진 파이프를 다시펴고 해서 재생을 시킨 것이다.

이 올간은 이태리 올간 건축을 대표할만한 역사적인 유물인 것이다. 이런 올간을 다시 생명이 있는 악기로 재생시킨 것이며, 오늘이 그 결실의 빛을 보게 되는 날인 것이다. 200여년전에 만들어졌던 올간이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닭시 청중들 앞에, 교인들 앞에 나타나는 날인 것이다. 연주회는 이태리 작곡가들이 쓴 올간음악으로만 짜여져 있다. 서기 1500~1800 년 동안 300여년 동안을 통해 작곡된 이태리 음악에숨이 이태리 악기에 의해 정통적으로 연주된다는 아주귀한 연주회인 것이다.

매곡마다 음 하나하나가 구술처럼 깨끗하고, 리듬이 빈틈이 없고, 표현내용이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듣는 이의 심경을 잠시도 한눈 팔 사이 없이 깊은 곳으로 끌고 가게한다. 이태리올간은 독일 것과는 달리 페달이 웅장하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전쟁터의 북소리라든가 새소리라든가 하는 특별효과를 내는 소리를 발달시켜 작은 악기이지만 다양성있는 소리를내게끔 한 것이 이 악기의특색이다. 다섯번의 앙콜을 듣고서도 청중들은 떠나기가 섭섭한듯 계속해서 박수를 친다.

연주회가 끝난뒤 많은이들이 직접 파이프올간이놓여있는 이층으로 올라가서 건반이며 파이프들이 나열된 뒷모습등을 관찰한다. 나는 이 깊은 산중에서200여년 동안 이 올간을 보호하고 지켜주어, 오늘의 결실을 보게한 이 볼품 없는 석조교회당에 감사를 보내며 내려왔다.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⑥

첫 부 임(고삿갓)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물론 그럴 수 있었을거요. 애집드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을 통해 모세로 하여금 동족애를 각성시켜. 주시고, 모세를 모세답게 이끌어주신 하느님께서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당신에게 사제성소를 주셨을 수 있을거요. 나는 조국과 동족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높이 존경하오."

"감사합니다. 관구장 신부님. 저를 평가해 주시는 신부님께 저도 존경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한 수도회 안에서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구도자로서의 동지가 될 수 없음이 다만 섭섭할 뿐이오."

"…"

나도 바로 그 점이 마음아팠던 것이다. 같은 수도회 회원으로서 통도 신부와 같은 덕성 높은 분을장상으로 모시고 조국과 동족을 위해 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다. 우리가 생각한 좋은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사가 한편 원망스럽기까지했다.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주겠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착실한 사제로서열심히 일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바치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관구장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수도원을떠난다 해도 도밍고수도회정신만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관구장 신부님의 사랑과 은혜도 잊지 않겠읍니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 하겠소. 그런데 러싸져 신부의 보고에 의하면 당신은 모래알지역에서 교포사목을 해보고 싶다고했지요?"

"네, 저는 영어보담은 프랑스말을 더 잘하기에 가능하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모래알지역에서 교포사목을 해보고 싶읍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문화를사랑합니다."

"잘 알겠소. 그래서 내가 레제 추기경한테 미리 당신을 부탁해 놨소. 오늘 오후3시에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니 그분을 방문토록 하시오."

"그렇게 하겠읍니다. 관구장 신부님."

내가 교포사목지로 모래알을 선정한 것은 내가 프랑스말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모래알은 캐나다에서 상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룬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이다. (현재 (1981년)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로 되어있다.) 그리고 남미에서 농촌이민이 실패한 예를 봤을 때 한국인을 위한 이민은 도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오후3시에 나는 레제 추기경을 주교청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분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우리들은 서로 안면이 있기에 나는 어려움없이 그분과대면할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 그분은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을열었다.

"태오 신부님, 내가 당신에게 일본인 본당사목을부탁한것이 동기가 되어 당신이 수도회를 떠나게 되었다면 그건 대단히 미안한 일이오."

그분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제 조국과 민족에대한 사랑을 재확인 시켜준 계기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도밍고수도회를 떠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오. 일본인에대한 한국사람들의 민족적 감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까지 심각한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었오."

"죄송합니다, 추기경님. 같은 캐나다 국민이면서도 퀘벡주의 프랑스계 사람들이 영국계 사람들을 싫어하는것 이상으로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하고 있읍니다."

"잘 이해가 되겠소. 그럼 당신은 우리 교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추기경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우선 어느 본당의 보좌신부로 2내지3년간 의 사목훈련을 받고 싶읍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민 사목을 생각해본 일이 없읍니다만 저에게 중요한것은 신부로서의 사목경험 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알 지역에 한국인이 현재 얼마나 되오?"

"약 100명정도로 저는알고 있읍니다."

"많은수가 아니구먼…."

"현재는 적은 수입니다마는 곧 캐나다정부가 한국인에게 이민을 개방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읍니다. 이민이 개방되기만 하면 많은 한국인이 이민 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무슨 확실한 증거라도 있소?"

"네, 현재 한국의 인구는 남한만도 3천만이 넘고 있읍니다. 말에 의하면 캐나다는 남한의 50배 이상이 되는 큰 나라라 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한국내의 인구밀도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 속)

RIM SONG HACK CANADIAN TAE KWON DO ASSOCIATION TAE KWON-DO

임송학 태권도 도장 2주년

RIM'S TAEKWON-DO SCHOOL

태권도

(79년 C.N.E.시범경기광경)

개업 2주년 특별봉사

- 자신감·배양
- 호신술 연마
- 튼튼한 체력연마및 인격도야
- 한국인의 긍지 함양

※교포자녀들에 한해 특별할인회비

1963 WESTON RD.
(Weston & Lawrence) Loblaws
전화: 247-7577 임송학

Instructor: RIM, SONG HACK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모든選擧法 改正촉구

柳致松民韓총재會見 "政治安定은 競爭보장 體制로"

維新잔재의 早速한 淸算을

大入試자율화·與野균형발전케

文化二重구조止揚·外債조기상환운동 벌여야

◇柳致松民韓黨총재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8일상오 汝矣島중앙당사에서 年頭회견을 갖고 ▲競爭原理에의한 政治體制 ▲恣意主義에입각한 經濟倫理확립 ▲外交루트의多樣化 ▲萎縮과 葛藤이없는 밝은사회 ▲自律·創意에의한 市民文化계발 ▲비판정신과표현의 자유를 제창했다. 그는 『특히민주사회에서 정치의 안정이란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의 확립을 뜻하며 與野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이미 與野간 정치자금, 조직등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관계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의 균형있는 배분을위해서는 與野구별없이 單一의 政治資金後援會를 만들어 院內議席비율에따라 배분하도록 하는한편 國庫補助金도 정부의 편의대로 지급할것이아니라 일정금액을 예산에산정, 各黨이 협의하여 지급시기와 액수를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각종선거법의 문제점을 면밀히검토, 次期선거때까지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재차 역설한 柳총재는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의 解禁은새로운 憲政秩序정착과 국민화합을위해 필요하기때문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고 언론기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民韓黨은 全斗煥 대통령이 이번國政연설에서 제의한 통일방안을 지지하며 北韓당국이 이를 거부한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柳총재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는 불안의 萎縮과 갈등이 없는 밝은 사회여야하며 法이지배하는 사회여야한다』면서 ▲維新잔재의 조속한 청산 ▲法治主義의 확립 ▲불합리한 법률의 정비 ▲法운용의 公正性과 公平性보장 ▲司法權의 독립등을 천명했다。

그는 『跛行的인 교육행정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있어야하며 거듭되는 試行錯誤로 교육을 오늘의 상황에까지 전락시킨 교육행정의 실패에 대해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大學입시제도는 정부의 介入을 배제하고 각학교가 자율적으로 입시제도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또 外債문제에 언급, 『정부는 急增하는 外債부담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 협조를 구해야한다』면서 『특혜받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外債상환운동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柳총재가 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치 = ▲議會主義 확립

◇경 제 = ▲민간주도경제체제확립 ▲실용예산편성 ▲불합리한 재정 금융정책및 租稅정책개혁 ▲명동사채수 연기및 秋穀수가수매

◇외 교 = ▲비동맹및 공산권과의 교류증진 ▲외교정책결정에 정치인의 참여

◇사회·문화 = ▲二重문화구조 탈피위한 각종관계법령 개정 ▲문화행정의 전환

쌀값下落·入試추궁 2일 農水産·9일文公委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28일하오 모임을갖고 최근의 쌀값下落에 따른 정부의 秋穀수매정책과 營農자금회수대책등을 따지기위해 오는 2월2일 하루동안 農水産委를 열기로하는 한편 入試제도에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듣기로 했다。

3黨총무는 또 제1백10회 임시국회는 丁來赫의장이 大洋洲및 東南亞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월말이나 3월초에 열기로 잠정합의했으며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치 못하고 法司委에 계류중인 11개법안을 처리하기위한 法司委소집문제는 金淑鉉 법사위원장에게 일임키로했다。

技術개발로 식량增産을

全대통령 指示 "多收穫시상·病虫害 미리對備"

◇全 대통령이 高建농수산장관 (서있는 사람) 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해 보고를 받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28일 새로운 기술과 지식개발로 식량 增産을 적극화, 식량수요 증가에 대처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피해, 冷害, 병충해 등에대한 대비책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농수산부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高建농수산부장관과 관계국장6명, 尹勳煥농촌진흥청장 金鍾洙수산청장등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농민들의 增産의욕을 북돋워주기위해 米作의경우 올해부터 段步當 6백kg이상 생산하는 농가에는 20만원정도의 상금을 주는 문제를 연구검토하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간척사업과 野山개발을 촉진, 農耕地확보에 주력하고 食생활의 합리화를 기해 식량을 절약토록 하는 한편 農水産物의 후진적인 流通구조를 개선, 産地와 소비자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대폭 정비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人工養殖 어업의 적극확대 ▲沿近海 오염방지 ▲內水에서의 폭약사용등 不法漁撈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農機械 성능개선을 위한 제작지도 ▲특용작물 재배권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가격 안정등을 아울러 지시했다.

3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보고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 金瓊成부총리겸 기획원장관 孫守益총리行調실장이 배석했다.

農事法人賃借農 육성

農水産部보고 放出價올려 糧特赤字축소

농수산부는 성실한 農地管理와 機械營農을 촉진하기위해 올해안에 관련법을개정, 48년이후 금지해온 農事法人의 賃借營農을 陽性化하고 농산물國際收支赤字의 深化를 解消하기 위해 보리·감자·콩의 증산계획을추진하는 한편 식량절약 및 食生活改善운동을병행, 보리·감자의 主食化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28일 全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 이앙기·수확기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12%에서 6%로, 도입 콤바인관세를 현행15%에서 2%로 각각引下하고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群山·長項상류 5km지점에 철도와 도로를함께시설하는 연장1천2백50m의 錦江河口堰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안에 10억원 (총사업비8백억원) 으로 實施設計와 진입도로를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高建장관의 槪括보고와 관계局長의 직접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업무계획보고에서 多收穫性 新品種의 재배면적을 81년의 27%에서 50%로 높이는것을 비롯, 모내기 5일 앞당기기, 재배밀도 높이기, 適期適量施肥, 병충해사전방제로 올 쌀생산목표3천8백만섬을 달성하고 81년말 현재 누적적자가1조1천4백26억원 (推計) 에 이르고 82년중 1천6백5억원이 발생할것으로 推定되는 糧特赤字를 줄이기위해 정부미방출가격을 現實化하고 加工賃절감과 보리소비촉진을 위해 收率이 50%에 불과한 고급割麥 (두개로 쪼개 搗精한보리·보통割麥收率은 75%) 을 생산, 민간자유판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고에서 농수산부는 이밖에도 農漁民후계자를「基本農家」로 그이름을바꿔 오는 91년까지 마을단위로 3~5가구를 확보, 농촌에 정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지난해에이어 우선 5백억원의 기금으로 2천명의 농어민후계자를선정, 基幹農家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81년말현재 1백50만6천마리로 숫자가 크게 부족한 소의 增殖을 농가부업으로 유도하면서 암소등록제를 실시, 등록된 암소가 낳은송아지에 대해서는 離乳期까지 사료대를 지원하고 등록암소의 실거래가격과 축협보장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축협이메워주기로하는 한편 올해안에 수입조장육에 대해서 部位別 差等價格制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水産廳은 올해시책기본방향을 水産資源조성, 복지어촌건설 및 원양어업육성에 두고 안전조업지도와 수산물流通加工·가격안정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수산청은 구체적인 업무계획보고에서 적극적인 水資源조성을위해 수산물의 産卵서식장3천정보에 魚礁를시설, 연안어장을 牧場化하기로했다.

北韓은 統一對話 호응하라

千寬宇民統의장 拒否는 分斷永久化처사

◇성명을 발표하는 千寬宇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千寬宇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은 28일 對北韓성명을발표, 『北韓측은 하루속히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실현시키고 여기서 통일국가의 통일沮害요인을 과감히 해소하기위한 「南北韓기본관계에 관한 暫定協定」체결등 중요문제를 토의,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긴급이사회의의결을 거친 이성명에서 千의장은 『全斗煥대통령이 國政연설을 통해 제시한 통일방안은 우리세대동안에 기필코 조국통일을 달성해야한다는 온겨레의 염원과 우리정부의 실천적 통일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을뿐 아니라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끼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北韓측의 방안까지도 대담하게 포용, 南北대화 門戶를 전면적으로 연 획기적인조치로서 內·外의 절대적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北韓측은 이른바「聯邦」案도 하나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대화의광장에나와 우리측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명은 『국토가 分斷된 37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민족이 통일되지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北韓측이 南北당사자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교류와 협력을 차단한것으로써 비롯된것』이라고 지적하고 『北韓측은 이같은 그들의 태도야말로 分斷을 固定시켜 우리민족을 영구히 분열시키는 처사임을 이제라도 똑바로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不正배제·創意는 존중

監査官회의 公職風土정화 지침

監査院은 28일상오 전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監査관계관회의를 열고 금년도감사중점방향과 자체감사방향을 시달했다. ★관련기사2면

감사원은 금년도 감사목표를 ▲不正과 無事安逸의배제 ▲創意와 所信행정의지원 ▲施政목표달성의 촉진등을 통해 깨끗하고 일잘하는 公職풍토조성에두고 특히 공직자를 모함하거나 상습적으로진정하는 행위를 근절키로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업무를자체감사기관과 분담, 중복되는감사를 피하고 階層別 감사를실시, 효율성을 높이며 감사의 중점을 취약분야 非理의제, 부정의 근원적요인제거에 두기로했다.

감사원은 특히 綜合監査체제의 확립을 위해 ▲감사원은 중앙관서와 上級기관,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및 자체감사기관이 불합리한 분야를 맡고 ▲자체감사기관은 감사원이 지정하는 代行감사와 계층제에 의한 산하기관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업무를 분담키로했다.

"그린벨트 일부解除 검토"

金建設 宅地難해결 위한方案

賃貸주택에 力點

【大邱=聯】 金宗鎬건설부장관은 28일 『택지난을 해결하기위해 지방장관의 건의에따라 특정지역의 그린벨트를일부 해제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낮 초도순시차 慶北道와 大邱市에 들러 이같이 밝히고 『누구나 능력을 갖추면 쉽게 집을 지을수있도록 건축법개정으로 각종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도시계획법·소방법·공유수면관리법등 관계법의 관련조항도 대폭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보급에 역점을 두고 이분야의 민간업자들에게 세제및 금융지원혜택을 줄 계획』이라면서 『경기부양책에 편승하는 부동산투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5개都市綠地 국민주택건설 民正

民正黨은 전국 15개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에 25坪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할경우 綠地帶개발을 허용하는등 주택정책면에서 적극적인 景氣浮揚策을 마련중이다。

民正黨은 지난 1월14일 정부가 발표한 景氣활성화대책이 不動産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미흡하다고판단 ▲그린벨트의 개발규제완화 ▲13坪型서민賃貸주택건설확대 ▲25坪이하의주택에대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등 지방세의減免조치등을 검토하고 있다。

民正黨이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을 완화, 25坪이하의 국민주택건축을허용코자하는 15개성장거점도시는 大邱 大田 光州 原州 江陵 淸州 天安 全州 木浦 順天 安東 晋州 濟州 南原 春川등 15개이다。

民正黨은 또 13坪型의 庶民用賃貸주택을 대규모로 건축, 서민들의 住居안정을 도모할계획아래 금년도에 3천호를 완공, 보증금 1백만원에 月賃2만원으로 入住시키고 25평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는 등록세의 2重賦課를 폐지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黨의 한관계자는 『현행등록세는 아파트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을경우 分讓가격의 0.8%를 보존등기료로 지불하며 최초입주자가 移轉등기료로 分讓價의 3%를 부담토록 되어있는데 아파트건설업자가 보존등기료마저 입주자에게 轉嫁시키기때문에 최초입주자는 3.8%를 부담하고있다』면서 부동산등기법상에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선박·자동차·항공기·重機는 생산자가 보존등기를하지않고 구입자가 0.8%의 보존등기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稅法上 논리에 맞지 않으며 국민주택도 보존등기료만을 부담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1차와 2차와 人員과…

日, 防衛費1%고수 美核배치 계속拒否

【東京27日UPI=聯】 스즈끼 젠꼬 (鈴木善幸) 일본수상은 27일 GNP(국민총생산)의 1%내로 일본의 방위비를 묶어두겠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인접국들에 위협이 되지않는 한도내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국정전반에 걸친 질문에 답변하는데 이같이 밝히고 日本은 계속 비핵3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地平線

以實直告—。네 罪를 네가 알렸다고, 罪人을 욱박지르던 시절은 지났다。 지금은 그런뜻의 罪人은 있을수조차 없다。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그는 罪人이 아니다。 그는 以實直告를 강요받지도 않는다。 조사하는 사람이야 以實直告를 바라겠지만, 그는 대꾸를 안해도 그만이다。▼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다。그러나 법을 지키는 법을 만들기보다 어려운 모양이다。 내무부가 마련했다는 새警察像확립방안(聯合通信28일字-(便)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그방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용의자를 불법연행·불법감금하지 말것, 수사상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먼저 수집한 연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를 구속할것—。▼그 방안에는 또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용의자의 심문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잠을 재우지 않거나 관용을 베푼다는등 詐僞的 방법을 쓰지말것, 용의자를 탈진시켜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지말것—。 법대로하라—이런 한마디면 족할 내용이 이렇게 장황해야하는 까닭은 고집어 말할것도 없다。이로써 근래 큰 사건에서 용의자의 자백번복 말썽이 잦은 까닭도 알것같다。▼며칠전 여대생 피살사건의 새용의자도, 그제 (27일) 변호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며칠동안 잠을못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더라는 변호인들의 傳言이다。 여기서 사건의 범인이 누구일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그저 『任意性있는 자백은 증거의 王』이라던 검찰 주장을 되새길뿐이다。▼일이 이렇게 되면, 검찰은 자백의 任意性을 증명해야 한다。그경우 용의자가 任意同行형식으로 구속전 며칠동안 계속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핸디캡이 된다。 며칠동안 잠을 못잤다는 용의자의 주장은, 그 사실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게다가 검찰은 電話盜聽의 口舌數를 적고있다。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口舌數만 해도 검찰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검찰과 경찰을 同列에 놓을수야 없겠으나, 앞서의 내무부 지침에 비추어서도 이번 검찰수사가 그 過程까지 완벽했다고는 못할 것같다。『불법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풀어 말할것도 없이, 범죄수사는 그 結論못지 않게 過程이 신중해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를 못했다가, 過程의 작은 흠집으로 해서, 수사結論이 번번이 뒤집힌다면, 그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融資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791-6896(R)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집
STEREO KING

● TELEFUNKEN (독일제품)
● SANSUI
● AIWA
● GRUNDIG (독일제품)

※비데오 취급합니다.

★ 교민께 특별봉사 ★

주소 : 2989 DUNDAS ST. W. (킬×던다스)
전화 : 766—4770 김 봉 훈

주식회사 황윤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 5,000. 6,000. 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 5,000. 4,500. 4,000

★ Shopping Centre
① 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 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 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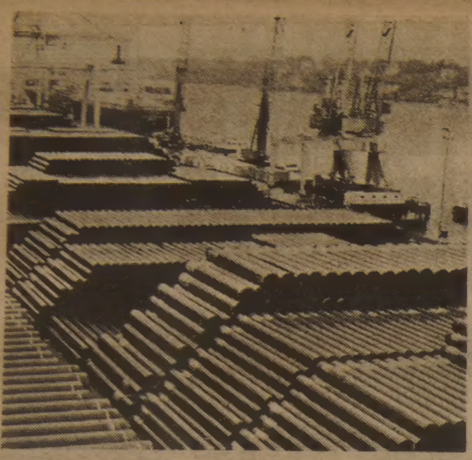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美·西歐「가스陷穽」논쟁

"蘇가스購入위험"에 "經濟性"으로 맞서

蘇수익 7百50億달러 규모

美의 抗議일축 西歐10여國 확산



◇서독의 함부르크港에서 선적을 기다리고있는 시베리아行 천연가스 파이프。【外誌】

高油價시대에 들어선이래 가스는 그걸로 익혀먹는 곡물과 마찬가지로 꽤나 신경이 쓰이는 물질이 되었다. 둘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 가스거래를 놓고 요즘 서유럽과 미국간에 是非가한창이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서유럽은 소련에서 가스를사들여서는 안된다는 미국의반발이 시비의 출발이다.

미국이 기를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소련의 천연가스가지니고있는「전략적함정」으로서의 위험성때문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안에서 발을맞추고 있는서유럽맹방의가가호호에뻗힌 가스관에 소련産 천연가스가 들어온다는사실을 연상하기조차 싫은것이다.

당장 기술과 자본이달리는 소련은 서독이 가스관을 건설해주면 그로부터 25년동안 천연가스의 안전공급을 서독에 약속했지만 東西역학관계의 귀추에 따라 소련이 혈안간 가스공급을 중단해 서유럽가정에 물리적·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태를 미국은 미리 막아두고 싶은것이다.

사실 바르샤바조약군 탱크밑을 관통한 천연가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가의 가정에 공급된다는사실은 꺽이나 상징적이다.

지난11월 브레즈네프의 본발문으로 가속도를 얻어 서독이 맨먼저 소련과 천연가스공급계약을 맺은 이번 거래는 여러가지면에서「세기적」이다.

우랄산맥을 가로질러 폴란드와 동독땅밑을 지나 동서독 접경까지 뻗는 장장 4천5백km라는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그렇고 서독에 이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물론 유럽의 西南端 스페인까지 도합 19개국이 줄이어 계약을 맺을것이 확실해져서 더욱 그렇다.

완공후엔 매년 천연가스6백억입방m를 소련이 서유럽에 팔게될 이번 거래는 1천7백50억달러를 소련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또한 세기적이다.

소련이 북극해연안 야말半島유전개발및 파이프라인에 시설투자할 비용은 모두 4백억달러 정도이다.

곡물수입증가에 따른 외화부족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는 소련입장에서보면 1천억달러이상의 흑자를 가져다줄 놓칠수없는 장사이다.

미국은『소련이 시베리아가스로 서유럽마저 지배하려하고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유동적 中東산유국정세에 따라 에너지수입源을 다변화할수 밖에없는 서유럽국가를 설득하지 못했다.

시베리아 가스유전 개발및 파이프라인부설은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유전개발보다 더 많은 기술과 투자를 필요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의 거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서독은 에너지수입의 20%를 천연가스로 충당할 계획인데 그가운데 30%만을 시베리아가스에 의존할 계획이다.

소련은 서독과의 가스공급협정체결로 시베리아 가스의 서유럽판매에 活路를 열었을뿐더러 정교한 서독의 가스유전개발기술을 배우는 一石二鳥의 이익을 취할수있게되었다.

소련이 이말半島 가스유전개발에서 기술을축적하여 동부 시베리아개발에 박차를가하려 들는지도 모를일이다.

서독에이어 지난 23일에는 프랑스가 미국의 반대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소련간의 가스공급계약은 파리에서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고위실무자 회의가 폐막된지 불과 이틀만에 이뤄져서 미국에 더욱 충격을주었다.

프랑스가 시베리아 가스수입에 열을 올리고있는이유는 현재 알제리에서 수입하고있는 가스보다 시베리아가스가 질이좋고 값이 쌀뿐더러 파이프라인이 부설되어 수송문제도 손쉽게 해결될수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소련이시베리아 가스판매계약체결에 성공함으로써 서방세력을 분할하려는 시도에첫개가를올렸다고新華社통신을통해공식논평했다.

서유럽과 소련의 가스계약체결이 미국의 표현대로「서유럽경제의 소련예속」까지 가져오진 않겠지만 미국의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서유럽국가들의 기본정책목표를 한발짝 앞당길것만은 틀림없을것같다.【李炳圭기자】

오만防衛 공동支援

사우디등 페灣6國회의서 合意

【매나마(바레인)27日AP=聯合】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6개국 페르시아만 협력협의회(GCC)국방상들은 현재 친소남 예멘과 분쟁을 빚고있는 오만의 방위를 공동지원하기위한 비밀계획에 합의했다고 살렘·알·사바 쿠웨이트 국방상이 밝힌것으로 바레인의 아크바르·알·칼레지지가 27일 보도했다.

사바국방상은 26일 리야드에서 폐막된 페르시아만국방상회의에서「4개의 비밀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그가운데 하나가 오만에 대한 이 협의회의 공동방위지원에 관한것임을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쿠웨이트의 알·와잔지는 이번 이지역 국방상회의가 채택한 비밀결의안중에는 사우디가 美國으로부터 공급받을 조기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이용, 페르시아만 합동 공중방위망을 수립하고 페르시아만 항동 신속배치군을 창설하는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리야드와 매내마의 공식소식통들은 이지역 국방상회의가 채택한 비밀결의안내용에 관해 논평하기를 회피했다.

압둘라·비샤라 GCC사무국장은 이들 결의안이 확정되기위해선 페르시아만 頂上회담에서 비준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친서방국가인 오만은 소련이 지원하는 인접마르크스주의 남예멘과 국경분쟁을 빚고있으며 알리·나세르·모하메드 남예멘 대통령은 지난주 오만이 미국신속배치군의 기지가 되었다고 비난한바있다.

美, 지하核實驗실시 1백50킬로톤級

【유카플랫트(네바다州)28日UPI=聯合】미국과학자들은 28일 최근 몇년만에 처음으로 소련과의 지하핵폭발협정의 상한선인 1백50킬로톤급 핵무기지하폭발실험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콜롬비아旅客機 납치범들 被拉機폭파威脅

老弱者86명석방

【칼리(콜롬비아)28日AP·UPI=聯合】콜롬비아의 에어로탈 항공사소속 보잉727 국내선여객기를 공중납치한 좌익「4월19일운동(M19)」소속게릴라 7명(남6명·여1명)은 수도 보고타 서방 4백40km지점에 위치한 칼리의 팔마세카 국제공항에서 피납기승객과 승무원 1백28명중 노약자와 아녀자 86명을 석방했다.

콜롬비아군 소식통들은 납치범들이 피납기밖에서 대치중인 군인들과 총격전을벌인후 만약 다른 항공기1대를 제공하지않으면 피납기를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말하고 군인들이 피납기를 향해 돌진하자 수류탄·자동화기로 무장한 납치범들이 총격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이 총격전으로 연료탱크에 구멍이 뚫렸으며 납치범들은 다른비행기를 요구했으나 공항당국은 승객전원 석방전까지는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被拉여객기 지켜보는 콜롬비아警察

자동무기로 무장한 콜롬비아경찰이 27일 M19좌익게릴라들에게 의해 납치돼 보고타의 엘도라도 국제공항에 강제착륙한 콜롬비아 국내선여객기의 동정을 지켜보고 있다。【보고타27日AP電送=聯合】

스페인도 蘇가스購入추진

美의 貿易制限압력 不拘

◇新·舊 유엔事務總長의 握手 쿠르트·발트하임 前유엔사무총장(右)이 27일 유엔본부에서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신임사무총장으로부터 평화메달을 증정받고 있다。【유엔본부27日AP電送=聯合】

「20여년간 去來」협상중

年20억㎥ 규모 西獨·佛·伊등에 이어

【마드리드27日UPI=聯合】스페인은 소련의 폴란드사태개입과관련, 동서간의 무역을 제한하라는 미국의 압력에도불구하고 연간20억㎥의 소련산천연가스 구입계약을 추진할방침이라고 스페인 정부관리들이 27일 말했다.

이관리들은 프랑스가 지난주 80억㎥의 가스구매계약을 체결한데대해 미국이 항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스페인도 소련산가스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를위해 현재 루이스·기예르모·페리나츠 駐蘇스페인대사가 20~25년간의 천연가스 장기구매협상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이관리들은 서방의 기술로 건설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유럽으로 수송될 소련의 시베리아산가스는 현재 60%수준에달하는 스페인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럽의 시베리아산가스 구매가 서방의 대소의존도를 높일것이라는 워싱턴당국의 우려에도 불구,서독은 이미 연간 1백20억㎥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탈리아도 소련이 서유럽에대해 판매가능한 연간4백40억㎥중 일부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레, 내달에總選

【더블린28日AP=聯合】패트릭·힐러리 에이레 대통령은 27일 개리트·피츠제럴드 수상내각이 사퇴서를 제출한후 오는2월18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피츠제럴드 수상이 이끄는 연립내각은 정부의 고물가정책예산안이 의회에서 1표차로 부결된후 사임했다.

佛左右翼서 모두 非難

미테랑政府의 蘇가스 購買계약에

"對蘇制裁 美에 同調해야"

【파리27日AP=聯合】프랑스좌우익 양진영과 신문들은 26일 일제히 미테랑정부의 대소천연가스구매계약체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계약은 지난12월13일폴란드의 계엄령선포에 따른 레이건미 대통령의 대소무역제재조치발표이후 서방진영과 소련사이의 첫 대규모계약으로 프랑스의 대소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것이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23일 체결되었다.

이날 권위있는 르몽드지는 이계약으로『노조와 좌익세력이 분열되었다』면서 미테랑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으며 좌익계인 리베라시옹지도『프랑스가 소련으로부터 가스를 얻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호응을 얻는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제1야당인 共和聯合(RPR)당수인 자크·시라크 파리시장도 프랑스도美國과 같이 對蘇무역재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에 "西方복귀"促求

지난가을 美·쿠바高位會談상기

레이건, 會見통해

【워싱턴28日UPI=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27일 미국의 對쿠바봉쇄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을것임을 시사하고 쿠바의「서반구복귀」를 촉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CBS방송과의 회견에서 쿠바를소련의꼭두각시라비난하면서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과 카를로스·라파엘·로드리게스 쿠바부통령이 59년1월의 쿠바공산화이래 최초로 작년가을 美·쿠바고위급회담을갖고 쿠바의 군사력증강및 소련무기의 대대적인 쿠바 수출문제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회담이 어디에서 열렸는지에 관해서는 입을다물었으나 앞서의보도들은 헤이그·로드리게스회담이 작년11월22일께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다고 전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26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 소외상회담에서도 쿠바의 군비증강문제가 거론됐다고밝히고 그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 내놓은 부분적인 쿠바봉쇄제안에관해 질문을 받고는『지금은 이에관해 논평할 계제가 못된다』고 대답했다.

메아리

어제로 전기대학 합격자가 모두 발표되었다. 내달초 후기대학 모집이 끝나면「82년도 입시열풍」은 완전히 지나간다. 수험생 가족들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느낌이 들것이다.

「入試苦」에 시달린 수험생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짐작도 할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탈락한 수험생들의 좌절과 실망은 어떻게 위로할지 답답한 심정이 든다.

「합격가정」도 마냥 감격에 젖어있을수 없는 형편이다. 산너머 산이라더니 入試苦뒤에 또「學費苦」「學費苦」가 눈앞에 버티고 섰다. 신입생만 아니라 대학 재학생도 마찬가지다.

금년 대학등록금은 작년에비해 14~20%씩 또 올랐다. 신입생의 경우 국·공립대 자연계가 49만원을 웃돌고 인문계가 44만원을 넘는다. 사립대는 이보다 10만원 이상이 더 많다. 대학에 두 자녀를 보내면 당장 1백만원이란 큰돈이 필요하다.

學費가 부풀수록 장학금 혜택이 절실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딱하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국·공립대서 30%, 사립대는 20% 정도라고 한다.

學費苦와 分納

은행의 학자금융자 창구도 열렸다. 새학기에 2백10억원이 풀려 나간다고 한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 가정과 은행을 통해 대학의 등록창구로「一時大移動」을 하게된다. 이 영향은 경제에도 크게 미친다.

民正黨은 한해에 딱 잘라 두번 내는 등록금을 한학기에 2~3회씩 갈라내는 分納制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촌에선 학비부담으로 쌀을 내다 팔아 쌀값 하락의 요인도 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농협의 농가저축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민의 71%가 저축을 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목적은 영농자금에 대비하기위한것이 19%인데 비해 교육비 마련이 32%나 되었다. 이부담은 도시인이라고 다를게없다.

등록금분납제와 함께 학점단위등록금제도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1년에 두번 거액을 한꺼번에 받아 들이는 현행 등록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개선책이 찾아져야 한다.

학교사정이 어려우면 정부가 대학에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부모와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겠다.「고통의 分擔」은 교육비라고 예외일수는 없지 않은가….

"波구실軍縮피해" 그로미코、美비난

【제네바27日UPI=聯合】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과 미소外相회담을 가졌던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은 27일 소련은「폴란드內政문제」에 관해 어떤 국가와도 토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폴란드사태를구실로 전략핵무기 제한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로미코는 이날 귀국에앞서 제네바공항에서 발표한성명을 통해 자신은 미국에 대해 폴란드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도록 경고했다면서 헤이그장관은 이번 외상회담에서 폴란드문제를 다루려했지만 소련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와도 이 문제를 토의하지 않을방침이라고 강조했다.

中共, 鄧와병설否認

【北京28日AP=聯合】중공당국은 28일 중공의 실권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이 와병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하고 鄧은 단지 北京에 있지않을뿐이라고 밝혔다.

중공정부의 한 공식대변인은 鄧의 와병설에관해 질문을받고 鄧이 북경에 있지만 않을뿐 건강하다고 답변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鄧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팔自治에 새構想

헤이그, 이스라엘訪問서 제시

【예루살렘27日AP·UPI=聯合】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27일 메나헴·베긴수상을 비롯한 이스라엘고위관리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자치문제에관한 미국의『새로운 구상』을 제시했으며 회담이 끝난후『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견해차이를 좁히는데 약간의 진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위해 2주만에 두번째 중동순방길에오른 헤이그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있은 그로미코 소련외상과의 미·소외상회담을마치고 이스라엘을 방문, 아리엘·샤론국방상, 요세프·부르크내상, 이츠하크·샤미르외상및 베긴수상등과 곧바로 회담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의 이스라엘측수석대표인 부르크內相은 45분간에 걸친 헤이그장관과의 회담이 끝난후 기자들에게『헤이그장관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견해차를 좁혀줄 몇가지 구상을 제시했으며 이구상중 일부는 실효성이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않다』고 지적했다.

海外토픽

"예수는 마르팡症候群환자"

美學者,「토리노聖衣」연구서主張

링컨도 가졌던病

토리노의 聖衣에 시체의자국을 남긴 십자가처형을받은 사람은 링컨 美 대통령과 같은 마르팡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을 갖고 있었을가능성이있다고 병리학자인 프레드리크·주기브 박사(美콜럼비아大·병리학교수)가 2월에 출간될「십자가와 성의」에서 주장했다.

마르팡 증후군을 갖고있는 사람은 팔다리와 손가락이길며 평균수명이 32세 정도밖에 안되는데 십자가 처형으로 사망한 시체에 관해 28년간 연구한 주기브 박사는 토리노 聖衣의 주인은 히브리 사람들의 평균키보다 훨씬큰 1m82㎝의 키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예수가 마르팡증후군을 갖고 있었다면 로마병사들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때 피와 물이 나온현상(요한복음)、로마총독 빌라도가 놀랄정도로 예수가 빨리죽은 이유또한 로마군인들이 예수의 다리를부러뜨리지 않은이유등 성서에 나오는 십자가처형에 관한 여러사실이 설명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책에 따르면 십자가에매달린 결과 심장을 둘러싸고있는 주머니에 피가 괴고 폐밑에 물이 괴게되었는데 창으로찔러 피와 물이나오게된 것이며 십자가처형에서는 빨리 죽게하기위해 다리를 부러뜨리는 관습이있었는데 예수가 빨리죽었기 때문에 그럴필요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주기브박사는 자기의 연구가 과학적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수의에 가시면류관, 창으로 찔린 상처의 자국이 있으며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것등으로 미루어 토리노聖衣의 주인은 마르팡증후군의 환자일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뉴욕=UPI】

다이애너紀念우표

★21회生日에…未公開사진

오는7월1일의「다이애너」英皇太子妃의 21회생일을 기념하기위해 발행될4개 기념우표중의 하나(사진)로 미공개사진을 사용하고있다. 이사진의 촬영자는 비밀에 붙여지고있다. 이들우표는 15개 英聯邦영토에서만 사용될예정이다【런던=AP】

Y대학생 1일찻집

국립각심원 원아들을 돕는 기금마련을위한 YMCA 산호대학생클럽 일일찻집이 30일상오10시부터 하오5시까지 열린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산호회원들은 그간 근로청소년들의 봉사외에 외로운 지진아들을찾아가 동화를 들려주고 노래와 그림그리기등을 지도하여 그들이 꿈을 갖고 밝게성장하도록 도움을펴왔다.

明洞성당 청년강좌

강사 金壽煥추기경

천주교明洞성당 청년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월례강좌가 오는9일하오7시 明洞문화관에서 열린다. 강사는 金壽煥추기경, 주제는「너어디있느냐?」

MARVIN — STARR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카보로 지역의 마빈·스타 G.M딜러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 일하게됐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께 봉사코자 하오니 언제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 의 문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PRIX, PARI SIENNE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LESABRE, ELECTRA, RIVIERA

〈각종 VAN트럭〉, 〈데모카〉, 〈USED CAR〉

※BEST SERVICE IN TORONTO
- 스카보로의 유일한 한국 세일즈맨
-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토론토지역 최저의 자동차 가격보장
- 항상 300~400대의 차를 보유

주소 :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조 의 문

大入試 本考査부활않겠다

문교부 82학년 大入考査 긍정적 評價

內申·배짱志願·눈치作戰 언급안해

"지방學生 서울進出감소등은 효과"

문교부는 28일 현행입시제도에 대한 공식평가를 통해 『82학년도 대학입시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앞으로 현행대입제도를 눈에띄게 손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기대학합격자 발표가 끝난 이날 문교부가 발표한 「현행입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번입시과정에서 나타난 심한 눈치작전과 정원미달및 배짱입학등 사태에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전국각대학의 응시상황이 고루분포돼 입학인원이 잘 충원되었고 ▲재수생문제가 해결됐으며 ▲지방학생의 서울지원이 줄어들어 지방대학의 육성에 기여했고 ▲내신성적의 반영결과 고등학교교육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긍정일색의 평가를 내리고있다.

문교부는 특히 현입시제도의 성과로 본고사를 폐지, 수험생들을 2중의 시험에서 해방시켰다고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본고사부활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李奎浩문교부 장관도 이날 일선학교교사들에게 『현행입시제도의단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눈치경쟁과 입시의사행성은 과거의입시제도하에서도 빠짐없이 거론돼왔던 입학시험의 본질적인문제』라고지적하고 『이문제는 합리적인 진학지도를통해 점차극복돼야지 대학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제배정하는 방법으로극복돼서는 안된다』고말했다.

李장관은 또 최근신문과방송들이 올 대학입시를 투기와 눈치가 난무하는제도였다고 평가하는데대해 자신은 동의할수없다면서 오히려 소신을갖고 지망학과와 대학을선택하는수험생들이 많으며 이런현상은 학교선택을 자유롭게한 이제도의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교부관계자는『현행입시제도에 문교부가 얼마나 또 손질을 할것인가』고 묻는 기자질문에 『현재 문교당국으로서는 기술적인 한두가지 사항이외에는 전혀 손을 대지않아도 될것으로 보고있다』고 대답했다.

이당국자는 李장관이 언급한것으로 알려진 前·後期대학의 재조정문제에도 언급,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관의발언이 와전된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당국자는 문교부가 올해 현행입시제도를 보완한다면 입학원서접수마감시간에 대한 기술적인연구, 각대학이 제가끔만든 입학원서양식의 통일방안, 대학별 지원자의 성적분포의 합리적인 보안방안등 지엽적인 사항에 국한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현행입시제도 개선책으로 거론된 「先시험後지원제」를 「先지원後시험」으로 바꾸는 방안도 그실현이 어려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입시를 보는 문교부의 이같은 안목은 입시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의 비판적여론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며 특히 民正黨이 공언한바 있는 현행입시제도의 개선주장과는 서로 상충되는 평가여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民正黨개선論 여론과 상충

앞으로도 계속 論難빚을듯

合格者발표장에 話題만발

쌍동이姉妹·형제팀 나란히 서울大에

가톨릭醫大 首席합격한 집념의 소아마비 女學生도

國校중퇴 「光化門 껌팔이」도 高大에

◇나란히 서울大에 합격한 쌍동이자매 希珍양(右)과 希玲양。

○…쌍동이자매인서울藝高3년權希珍양과希玲양(18)이 각각 서울大사회3계열과 심리학과에 나란히 합격했다。權康寧씨(49·부산세관세무국장·서울城北區貞陵洞1 75의29)와 孫溶惠씨(44)사이의 1남2녀중 쌍동이자매인 이들은 국민학교때부터 줄곧 수석을 다투며 1·2등을 차지한 선의의 경쟁자사이。藝苑女中을 졸업할땐 동생希玲양이 수석을 차지하고 언니希珍양이 2등을 차지했고 서울藝高에선 언니希珍양이 수석, 동생希玲양이 2등을 하는등 사이좋게 번갈아가며 1·2등을 도맡아왔다。

이들은 모두 학력고사에서 2백80점이상에 내신 1등급을 얻어 처음부터 서울大한곳에만 원서를내 합격한것。

자매는 학과공부에서뿐만 아니라 피아노에서도 뛰어난 재능을보여 각종 콩쿠르에서 1·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希珍양은 한국일보주최 제1회전국어린이피아노·바이올린경연대회에서 특상을 차지했고 希玲양은 같은대회 2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또 藝苑콩쿠르에서도希珍양이특상을, 希玲양이 금상을 따내는등 난형난제의 재능을보여주었다。

어머니 孫씨는『두딸이 한상 붙어지내며 서로가 채찍질한 결과』라며 대견스러워했다。

權씨집은 쌍동이자매가 한꺼번에 서울大에 합격함에따라 서울商大를 졸업한 아버지와함께 「3부녀동문가족」이된셈。

希珍양은『사회학을 전공, 교수가 되거나 언론인이 되고싶다』고 말했고 동생 希玲양은『외교관이나 법관이 되는게 꿈』이라고말했다。

○…쌍동이 형제인 金演洙군(18·永東高출신)과範洙군(18·京畿高출신)도 서울大 의예과와 서울법대에 함께 합격해 화제。

형 演洙군은 학력고사 3백13점에 내신1등급, 동생 範洙군은 학력고사 3백6점에 역시 내신1등급。

감사원 감사2국3과장인 金鍾喆씨(48·서울江南區論峴洞110의6)의 2남1녀중 쌍동이 형제인 이들도 국민학교때부터 줄곧 1·2등을차지해온수재로 서로 실력이떨어지는 과목을 보완해주면서 한방에서공부했다는것。

합격소감을 묻자 형제들은 『의학에 반도체기술을도입, 의술의 전자정밀화에 노력하겠다』『국제법을 전공, 獨島와 백두산정계비문제등을 연구해 법학교수가 되겠다』고 각각 포부를 펴보였다。

○…생후6개월만에 소아마비로 불구가된 여학생이 불구를 이기고 대학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학력고사 2백90점과 내신성적 1등급으로 가톨릭대학 의예과에 수석합격한 李貞姚양(19·首都女高출신)。

李양은그동안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통학하면서도 하루도 결석이 없었다。

李양은『의과대학을 졸업한뒤 훌륭한 의사가 돼 자신과같은불우한신체장애자들을위한인술을펴겠다』고말했다。

◇소아마비의 불구를 이기고 가톨릭의대에 수석합격한 李貞姚양。

○…국민학교 3학년을 중퇴한 『光化門껌팔이』가 독학 7년만에 高大영문과에 합격했다。

光化門껌팔이는 서울鍾路區 舍堂2洞山20 尹燦錫군(28)으로 尹군은 高大에만 4년째 응시했는데 고향인 전남康津郡道岩面에서 국민학교3년을 중퇴하고 부모와함께 상경, 光化門일대에서 낮에는 신문을 팔고 밤에는 껌팔이를하면서 독학, 지난76년 4월과8월에 중·고졸업학력고사에 합격했다。

尹군은 앞으로 영문학을 전공해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고 상아탑의꿈을 밝혔다。

法大、2백98점線 고학력

高敞高 15살소년 工學계열 들어가

서울大 합격자 발표

서울大는 28일상오 모집정원 6천5백16명에 19명이 미달한 6천5백7명의 82학년도 신입생합격자를발표했다。

미달된 학과는 농대 농학과5명, 가정대의류학과 3명, 음대 작곡과5명(남자2명, 여자3명) 국악과이론전공6명등 5개과다。

법대의경우 합격선은 학력고사성적 2백98점에 내신성적1등급으로 5백30점 만점에 4백88점으로 알려졌으며 의대의예과의경우 학력고사 2백96점에 내신성적 1등급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는 이날 성적불량자처리기준을 마련, 일반 계열의경우 학력고사성적 2백점미만인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모두불합격시키고 모자라는 인원은 2~3지망자로 충원했다。

또 동일계 수험생의 경우 1백80점이하는 탈락시키고 일반계열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했다。

이결과 일반계열에서 농대 농가정과 1~2명이 탈락됐고 동일계에서는 1백53명의 응시생중 7~8명이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연소합격자는 공대에 합격한 만14세의 李永彩군(전북高敞高출신)이며 최고령자는 32세로 인문I계열에 합격한 金규태씨(光州사레지오高출)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남학생이 한명도 없었던 의대 간호학과에 임의수군(20)이 유일하게 합격했다。

또 전체수석은 학력고사에서 3백32점을받아 전국수석을 한 법대의 元喜容군(19·濟州第一高)이다。

서울大는 미달된 학과에대해 2차전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입시결과 커트라인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높아져 고득점자의 재수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전자공학붐탓인지 생활학과동이속한 자연대계열이 예년보다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던것으로 알려졌다。

高大、미달 16學科 2백19명、充員끝내

高麗大는 28일상오 교무위원회를열어 1차전형에서 모집정원에 미달한 16개학과의 미달인원 3백1명을 충원하기위한 추가사정을 실시, 2백19명을 충원했다。

이로써 高麗大는 영문과등 7개과에82명이 미달된 채로 금년도 신입생 선발을 끝냈다。

추가사정에도 불구하고▲재료·금속계열 2명▲수학8▲식품2▲농학1▲영문14▲기계화공34▲전기21등82명이 미달됐다。

3백점이상高點者 再修生은불과5%

大入학력고사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총응시자57만8천4백57명)에서 3백점이상고득점자의 약95%를 올해고교졸업예정자들이 차지한 반면 재수생이 점차 밀려나 하위로 처진 것이 밝혀졌다。

중앙교육연수원이 28일 고교졸업예정자와 재수생의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성적을 비교분석한바에 따르면 3백점이상 고득점자 8백21명중 재수생은 전체의 5·3%인 44명에 불과하고 올해졸업예정자가 7백77명으로 94·6%를 차지했다。

酷寒기승…오늘 零下15도 春川

週末까지 계속 南部도 영하7~12도

◇重武裝한 시민들 기승을 부리는 늦추위로 거리의 시민학생들이 모자·머플러로 얼굴까지 감싸는 중무장을 했다。추위에 강풍마저 몰아쳐 행인들의 발걸음도 한결 빨라진듯 했다。

서울 體感온도 어제 영하21도

연3일째 전국을 휩쓸고있는 늦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될것 같다。

기상대는 29일의 최저기온이 春川지방의 영하15도를 최저로 서울 영하14도, 중부지방 영하12~15도, 남부지방 영하7~12도의 분포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파는 습도54%의 건조한 날씨에 초속5~6m의 바람까지 동반, 체감온도를 한층 떨어뜨렸는데 28일 서울지방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21도8분까지 내려갔는데 중앙기상대는 이번 한파가 한랭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때문이며 이같은 추위는 2~3일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기상대는 또 서해남부·남해서부·동해중부일원에 내린 해상폭풍주의보가 29일에도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최저기온은 春川 영하13·2도를 최저로 서울 영하12·8도, 水原영하12·7도, 淸州영하10·8도등전국이 영하권이었다。

20代여인과 同宿한 7旬노인 變死

28일 새벽5시30분께 서울 西大門區弘恩3洞172의4 崔秉鎔씨(73)집 안방에서 崔씨가 머리를 둔기에 맞고 신음중인 것을 손자 재호군(15)이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가족들에 의하면 27일 하오11시께 崔씨가 사귀어 오던 金모양(25·다방종업원)이 찾아와 함께 잤는데 새벽에 신음소리가 나 방문을 열어보니 崔씨가 이마, 턱, 뒷머리등 5군데를 흉기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

경찰은 崔씨가 4년전부터 磚磻洞에 있는 녹수다방 종업원으로 있던 金양과 계속 사귀어 왔고 최근 金양이 결혼하려하자 崔씨가 방해를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金양이 崔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金양을수배했다。

"까분다"是非 10代들 殺人劇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8일 趙모군(18·음식점종업원)등 10대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26일 하오5시40분께 서울永登浦區 楊平洞4街 신진자동차 옆골목에서 평소 잘알고 지내던 高明周군(17·서울永登浦區堂山洞4街90)이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러 따지자 高군을 과도로 찌르고 자전거체인등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어선2隻 표류

小黑山島 파도거세 救助지연

【木浦=聯】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28일상오 10시30분께 전남新安郡黑山面小黑山島서남방 64마일 해상에서 仁川수협소속 제5동흥호(75톤·선장 李相元·43)와 제2창승호(73톤·선장 韓昌玉·47)가 선원8명과 9명을 각각 태운채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고 구조요청을 해왔다。

木浦지구 해양경찰대는 현지 해상에 5~6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출동을 못해 인근 선단에 구조를 지시하는 한편 기상이 회복되는 대로 경비정을 파견, 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法廷탈주 소매치기 主犯李에 징역5년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崔鍾泳부장판사)는 28일 南部지원 법정탈주사건과 관련 李相熙피고인(29·전과7범)등 4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수도주등)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 李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보호감호7년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징역5년, 보호감호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禹淑植피고인(29·전과7범)에게는 징역5년, 보호감호7년(원심징역7년, 보호감호10년)을, 鄭殷相피고인(23)에게는 징역2년, 보호감호7년(원심징역3년, 보호감호7년)을, 李孝基피고인(23)에겐 원심대로 징역3년, 보호감호7년을 각각선고했다。

工場長이 工員살해 말다툼 쇠망치때려

28일 새벽2시30분께 서울東大門區面牧6洞山12 한일골동품제작소(주인 元인희·38) 기숙사안에서 공장장 朴龍植씨(22)가 공원 朴광흠씨(23)와 말다툼을 벌이다 망치로 朴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했다。

가해자인 공장장 朴씨에 따르면 27일 주인 元씨로부터 식대명목으로 1만원을받아 공원 朴씨와 함께 東大門區 숭인3洞 전주식당에서 술을 마시던중 공원朴씨가 『이돈은 식대가아니라 가불받은 것이니 꾸어간돈 5천원을 갚으라』며 시비를 걸어와 홧김에 기숙사에 돌아온후 쇠망치로 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것。

경찰은 공장장 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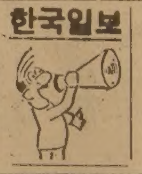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한국일보 詩壇

흙의 피

權石昌

가버린 시간에 마음 주지 말며
지는 해에 눈물짓지 말아야지
하며 걷는 이 길에
잎사귀 떨군 잡목 몇 그루
작은 가지 바람에 떨며
꽁지 빠진 굴뚝새 몇 마리
작은 소리로 낮게 울어
잃어버린 것 만큼 자취 없는
마음 빈터에 여울져
가버린 시간에 마음 주지 말며
지는 해에 눈물짓지 말아야지
하며 걷는 이 길
잠든 땅에 쭈그리고 앉아
무심히 금을 그으면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흙의 피
잃어버린 것 만큼 자취 없는
마음 빈터에 여울지는
흙의 피.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자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在日한국인「差別」고쳐져야

한국인收容所 면회·실정조사 거절

땅값하락 理由…韓人학교 못세우게

"양심상 용납할수 없는 宣教的과제"

◇현재에도 한국인 98명이 수용돼있는 일본오오무라 수용소. 이 수용소의 철폐를 비롯한 각종 차별의 해소가 한·일두나라기독교 대표들에 의해 요구됐다.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주제로한 한일교회협의회는 지난18일 한국측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대표들과 일본측에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한가운데 개막됐다. 이번 협의회는 한장소에서 열린것이아니고 九州, 廣島, 大阪, 京都등지의 인권침해가있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개최됐다는 점이 특이하다.

金昭暎KNCC총무, 趙南基인권위원장, 金觀錫목사등 한국대표13명과 일본대표22명은 이같은 현장답사회의를 통해 日帝의 한국침략과 전쟁이 빚은 희생과 고난, 차별과 억압이 전후36년이지난오늘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비참한 생활속에 계속되고있는 상황을 일일이 확인했다.

일본측 대표들은 일본당국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당대뿐만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같은 차별대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양심상 허락할수 없는일』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으며 일본교회는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두나라 기독교인들을 함께 부끄럽게했던 장면은 오오무라수용소의 실태와 교오또의 東都학원이었다고 한국대표들은 전하고 있다.

오오무라수용소에는 한국인98명이 수용돼있었으나 두나라대표들은 면회를 거절당한채 한마디 실정조사들을수 없었으며 교오또의 민단계한국인학교인 東都학원은 주민들의 농성·반대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東都학원은 2만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공사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주민들이『한국인학교가 들어서면 땅값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는것인데 현장에 나붙은 플래카드는「자연파괴를 막자」는등의 선동한 것이었다.

韓日교회협의회는 현장답사와 공동토의를 거친끝에 양국교회가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선교적과제로 이해하고, 신앙과 양심에따라 책임을 다하기위해 대책을 강구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재일한국인의 在留權, 생존권, 재일한국인 2세 3세등의 주체성을 위한 민족교육 문제등은 한국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도 요구됐다.

이들은 또 같은 신앙인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재일한국인의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국제인권규약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공동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5개항의합의서를 발표했다.

①원폭피해자문제=우리는 강제연행등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거주하다가 불행을 당한 재일한국인 피폭자는 물론 한국에 있는 피폭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생활보장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조치할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일본정부의 원호법제정을 요구하며 양국교회가 적극적인대책수립과 공동의 활동을 전개한다.

②오오무라 수용소 문제=오오무라수용소는비인도적이며 비합법적인처우를 즉각중지할것이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의 정책적 협의를통하여오오무라수용소의폐지를고려할것을 요구한다. 양국교회는 이문제를 여론화하여조속히 해결할수있도록 노력한다.

③생활권문제=우리는 재일한국인이법률적사회적차별대우와 인권유린, 심한 생존위협을 받고있음은 중대한사태임을 일본정부에 경고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재일한국인의 모든 생활권을보장할것을 요구한다.

④거주권문제=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그 거주의 원인이 일본측 책임을 확인하고 재일한국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도록 거주권보장을 입본정부에 요구한다.

⑤민족교육문제=우리는민족의 고유성이 국적여하를막론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배려돼야할 일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특히 2세3세의 민족주체성 회복을 위해 일본내 각학교에서의 민족교육의 보장과 한국계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허용할것을 요구한다.

【李忠雨기자】

兩國 기독교인들「人權합의서」5個項발표

韓日 두나라를 대표한 기독교인들이「在日한국인의 人權에관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형식으로 발표된 이 합의서는 ①被爆者 ②오오무라수용소 ③生活權 ④居住權 ⑤民族교육등 5개항에걸친 민족차별현실을 일본정부와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고발하고있어 특별한 관심을 모으는것은 물론 그 반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이합의서는 지난23일 두나라 대표들이 제5차 한일교회협의회의를 끝내면서 일본에서 발표됐다.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㊷

眞珠灣폭격과 宣教師

美·日전쟁의 막을올린 1941년 日帝의 진주만폭격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혼식이 있은지 불과 이틀후인 12월8일의 일이었다.

그날 새벽 눈도 뜨기전에 이사실을 알려준사람은 延禧전문에서 영어와 서양사를 가르치고있던 李卯默교수였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니 가방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었다. 우리가 실제로 추방당할때 李교수는 일본사람들의 눈총을 무릅쓰고 서울역까지 전송을 나왔으니 그가 베푼 우정은 넓고도 깊은것이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부리나케 부모가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다른 이삿짐은 제쳐두고 가장 소중한 식량과 땔감을 우선 날랐다.

우리집에는 겨울을 나기위해 석탄을 준비한게 있었는데 이를 승용차의 의자를 들어낸뒤 실어날랐다. 이 승용차는 크라이슬러로 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고급차였으나 급한 마당에 그런것을 따지고 있을때가 아니었다.

이사를 채 끝내기도전인 하오2시께 일본헌병대가 아버지를 먼저 연행해갔다. 나는 저녁무렵 서대문에서 왔다는 경찰관에게 끌려갔다.

日警에 外國人 13명과 軟禁

경찰에 이끌려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교에 도착해보니 선교사등 9명의 외국인이 와있었으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아버지는 용산헌병대본부에서 다른 2명과 함께 열흘간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감리교신학교에 연금된 외국인은 모두 13명으로 6개월간이나 꼬박 갇혀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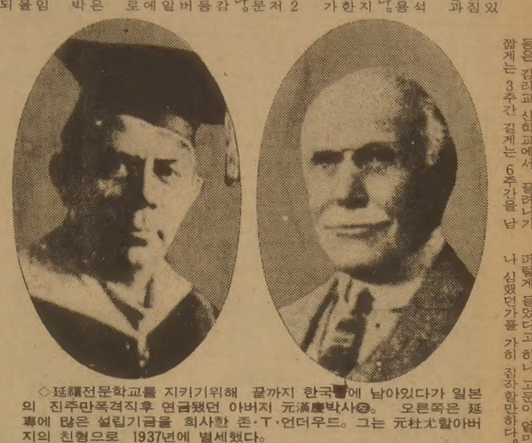
연금된곳은 교실 안이었다. 감없이 감시를 받으면서 연금생활을 하는동안 면도나 세면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허리띠를 모두 빼앗아갔다.

감리교신학교안에서는 고문같은 것은 없었지만 바깥 사정이 어둡고 언제 무슨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했다.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임원인밀러(회장)·군스(서기)·라이너(회계)씨등은 감리교 신학교에서 끌려나가 짧게는 3주간 길게는 6주간을 남대문또는 용산에서 분리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분리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주전자물을 들이켜고 의식을잃거나 고무호스로 매를맞는등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밀러씨의경우 고무호스로 머리를 여러차례 맞았는데 나중에보니 가슴까지 멍이 퍼렇게 들었다고 하니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가히 짐작할만하다.

이들이 집중심문을 당한것은 선교단체를 마치 스파이 단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했는데도 안가고 남아있는것으로봐 무슨 비밀명령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延禧전문학교를 지키기위해 끝까지 한국땅에 남아있다가 일본의 진주만폭격직후 연금됐던 아버지 元漢慶박사(左). 오른쪽은 延專에 많은 설립기금을 희사한 존·T·언더우드. 그는 元杜尤할아버지의 친형으로 1937년에 별세했다.

洗面도 못하고 外部와斷絶…일부는 심한 拷問받아

다행히 나의장인 데이비슨씨는 연금되지않았다. 노인이었기 때문인지아니면 영국인이었기 때문인지 그이유는 알길이없다.

서프라이즈·파티에 참석했고우리와같이 연금된 해롤러씨(유한양행 서무담당)는 白러시아인이고 유한양행에 근무하던 화란사 바라트씨는 헝가리인이었다. 연금된 13명중 홍일점으로 여자한명이 끼여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우리들의 식사는 하루이틀인가를 경찰에서 대주었으나 그후는 가족들에게연락,도시락을 날라다먹으라고했다. 도시락에딸려 보온병의 차입도 가능했다.

한번은 이 보온병 아래쪽의 마개를열고 그속에 쪽지를 넣어 담는방법으로 가족과 메시지를 교환한일도 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가 이를데 없었던 것이다.

고달픈 연금생활 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않는 한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커르룩사와 헝가리인 바라트씨가 코를 심하게 골아 두사람의 침대를 교실한쪽에 나란히 붙여놓았다.

그런데 어느날밤 그들이 코고는 소리가 어찌나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소리와 같은지 사람들을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커르룩사가「아옹」하면 바라트는「으르릉」하고 맞받아 코를 고는 바람에 모두 잠이깨고말았다. 교실밖의 경비원도 한밤중의 때아닌 개와 고양이의 싸우는 소리에 문을열고 들여다보고 이신기한 화음에 기절초풍했다. 코고는 에피소드가 더러있지만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봇!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도 당신은 선물을 주지않았단 말예요!!"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구요!" —꽝— "그래, 그래… 자 여깄어!" "아이, 여보, 당신 정말 이렇게 주지않아도 되는건데".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 長身中共에 逆轉勝

쿠웨이트國際핸드볼 前半戰선 苦戰

【매내마27日=聯合】쿠웨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국제친선핸드볼선수권대회 예선2차전에서 韓國은 27일 中共에 33대3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韓國은 이날 체력이 우세하고 장신인 中共팀을 맞아 고전, 전반을 14-16으로 리드당했으나, 후반들어 철통같은 수비를 펴고 정확한 속공과 패스에 강숏을 퍼부어 中共을 교란, 실점을 만회하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후반종료 5분을남기고 韓國팀은 6점차로 간격을 벌리면서 中共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승세를 굳혔다.

▲2일째 기록
韓國 33 (19·14 / 15·16) 31 中共

李德姬 1回戰탈락 에이븐테니스

【로스몬트(美일리노이州)27日UPI=聯合】26일밤 美일리노이州 로스몬트에서열린 여자단식 1회전에서 韓國의 李德姬선수는 앤드리어·리드에게 6-0, 6-3으로 패했다.

한편 상금15만달러의 이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서독의 실비아·하니카는 브라질의 파트·메드라도를 6-0, 6-0으로 완파했다.

85년 아시안게임 冬季大會 日 올림픽委서 개최를제의

【東京28日=聯合】88올림픽유치에 실패한이후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개선하려는 日本은 최초로 85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동계대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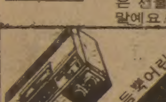
이러한 계획은 27일日本올림픽위원회(JOC)총회에서 5개 일본팀계스포츠협회가 제안했는데 JOC당국자는 JOC가 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뒤 아시아각국올림픽위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黃忠載·쿠에바스 挑戰者결정 12회전 2월28일 라스베이가스서

【뉴욕27日UPI=聯合】美國의 프로복싱 흥행회사인 톱랭크社는 한국의 黃忠載와 멕시코의 피피노·쿠에바스간의 12회전 경기를 오는2월27일(한국시간28일) 라스베이가스에서 거행한다고 공식발표했다.

WBC는 이대전의 승자를 웰터급 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의 차기도전자로 승인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WBC웰터급 랭킹에서 쿠에바스는 1위, 黃忠載는 2위에랭크됐으며 WBA랭킹에서 黃이 1위, 쿠에바스가 5위에 올라있다. 쿠에바스의 전적은 29승(26KO)7패.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화,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서울올림픽支援財團 設立 理事長에 李載高씨 內定

◇李載高씨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는 올림픽준비및 개최에 따르는 제반 사업을 총괄할 가칭「서울올림픽지원재단」을 설립, 이사장에 李載高씨(前농수산부장관)를 내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올림픽지원재단은 올림픽재정조달을 위한 福票발행등 수익성있는 사업을 맡을것으로 알려졌다.

李이사장은 2월초 美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 LA올림픽재정조달대책등을 연구검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救癩의 날」31日로 15회맞아

◇李庚宰신부

「나환자에게는 자비를, 하느님에게는 영광을」을 표어로 내걸고 한국천주교회가 세계나병의 날인 1월 마지막 일요일(올해는 31일)을 救癩의날로 정한지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현재 지구상에는 1천만명 이넘는 나환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5만명으로 추산되나 그가운데 등록환자는 2만8천명에 이른다.

한국가톨릭나사업가연합회(회장 李庚宰신부)는 이사회에서 가장·버림받고있는 이들 나환자들을 위해 37개의 정착장을 지원하는 한편 3개의 불구나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李신부는 구라주일을 앞두고『나환자들은 병들어 아픈 고통에다 혐오의 고통, 사회로부터 이별에서 오는 고독의 고통, 가난의고통, 사회로부터의 소외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神學硏 10주년 3일간 신학토론회

한국신학연구소(소장 安炳茂)는 연구소창설 10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 신학토론회를 28일부터 30일까지 삼지회관(돈암동 성베네딕도수녀회)에서 열고있다.

아동문학가協會 새회장 朴洪根씨

한국아동문학가협회는 지난18일 제12회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아동문학가 朴洪根씨를 뽑고, 부회장으로 金鍾祥씨, 劉庚煥씨, 李五德씨, 李榮浩씨, 崔仁鶴씨를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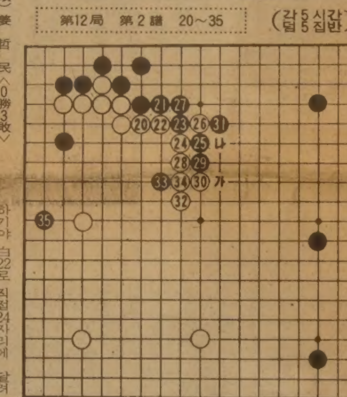
姜善泳 무용단서 에어로빅·댄스강습

姜善泳무용단은 건강을 위한 가정스포츠로 각광받고있는 에어로빅·댄스강습을 2월1일부터 한달간 무용단사무실에서 실시한다. 대상은주부및 일반인. 강사는 상명여대 이영숙교수. 29일 하오5시까지 무용단사무실(☎51-52)에서 신청을 받는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2局 第2譜 20~35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姜哲民〈0勝3敗〉
黑(4段)鄭壽鉉〈1勝2敗〉



觀戰子의 일방적추측이지만, 姜6단의 연속3패는 앞서 金熙4단에게 패한일이 하나의 원인이었는가 싶다. 執白으로 姜4단의 黑대마를 몰아치다가 일대역전을 당했는데 그도중에서 여러차례 공격군을 철수하면 그대로 승리할수 있었던만큼 뭔가 심적으로 좋지않은 변화가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姜6단은 앞서 말했듯이 화점자리를 즐겨 차지하는棋風이다. 그래서 오늘도 한사코 자신의 능기인 대세력작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좌상귀의 실리를 제공하면서 3連星布石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것도 그런식이며 白20으로 막고 黑21때 거듭 白22로 밀어붙인수도 초지일관의 작전이다.

大勢力의 問題點

하기야 白22로 직접24자리에 달려두면 黑이 손을빼고, 즉시 좌변을 파괴하려들지 모른다. 따라서 22는 이 경우 강수라해도 좋을것같다.

黑은 23이하31로 이른바 行馬法을 지키며 상측일대에 역시 막강한 세력을 쌓았다. 여기서 姜6단은 34의 곳을 어떻게 지킬것인가 골똘히생각했다. 그리고 5분후 白32, 호구이음하고 黑이 역로에 33으로 틀어다보자 白34로 잇더니『역시 잘못인가?』한다.

黑31의 싯점에서 白은 正手대로 32(혹은 34로 꽉 잇는수도 역시正手)로 호구친수가 내키지않았던 모양이다. 사실 白32는 완착이라는 평이었다. 이경우는 白「가」로 강하게뻗을 시기였다. 黑이43자리를 忽더라도 白「나」로부터 젖는수가 있어서 忽지를 못하는것이다. 이윽고 黑35. 白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2〉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⑨

사모님에비해 유원장은 초라하고 우울해 보였다. 사모님에게서 들어서 그가 시내에 나간 용건을 알고있기때문에 그럴만도하다 싶었다. 수지는 인사만하고 그가내린 버스를 타려고했더니 그는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수지를 근처 다방으로 이끌었다. 많이는 아니지만 술취한것같았고 외로움을 타고있는 것도 같았다.

『우리 집에 들렀다 가는 길이면 다 들었겠지만…』

유원장이 말끝을흐리며 수지의 눈치를 살폈다.

『네, 다 들었으니까 다시 설명안하셔도 돼요』

수지는 그 얘기를 또 듣기가 지긋지긋하다는 투로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해?』

『축하해요』

『뭘?』

유원장의 눈이 불안하게흔들리면서 엉덩이를 괜히 들썩거렸다. 저렇게 소심한 눈치꾸러기는 아니었건만, 하는 생각이 수지마음을 담담하게 했다.

『부자가 되신거 말예요』

『집사람이 그러던가, 우리가 부자가 됐다구?』

『네, 그것도 아주 큰 부자가요』

『큰부자?』

유원장이 파안대소했다. 유쾌한 웃음이라기보다는 공들여 쌓아놓은 장난감집짓기가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처럼 자포자기한 웃음이었다.

『그래, 큰부자라고 해두지. 우리가 고아원을 닫고 갑자기 큰부자가된것을 어떻게 생각해?』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뿐이야, 솔직이 말해줘』

『선생님답지 않아요』

『뭐가?』

유원장이 남의 눈에 띄게 움찔하면서 물었다.

『남이 뭐라는가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럼 여지껏 난 내 소신껏 살아왔어』

『이번 일도 소신껏 하셨을텐데 남이 뭐라건 말건 신경 쓰실거 없잖아요』

『수지가 내 아픈데를 찌르는군. 돈을 알고부터야. 남들이 뭐라는가에 신경이 예민해진건 말야』

유원장이 고백이라도 하듯이 털어놓고 말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솔직하지못해 보였다. 초라하고 겁먹었지만 거짓없는 성품이 일종의 품위로까지 보이던 예전의 유원장이 아니었다.

다방속은 읍소재지의 다방처럼 촌티를못벗었는데도 손님은 많았다. 장사꾼 같기도 하고 브로커같기도한 남자들이 서너명씩모여앉아 이마를 갖대고 수군대는 얘기는 분명히 한담같지는 않았다. 가끔 서로 곁눈질하는 그들의 눈은 모의를 꾸미는 것처럼 지능적이었고 수군대는 말소리엔 끈적거리는 열기가 묻어있었다. 버스종점 외엔 근처에 큰건물도 사업체도없는 어중간한 시골다방에 앉아올리는 활기를 불어넣고있는 이들을 수지는 신기한듯이 바라보았다.

『저 친구들 다 돈독이 잔뜩 오른 친구들이야』

유원장이 마치 저들은 다 내가 데리고있던 아이들이야 하는식의 필요없는 객기를 부리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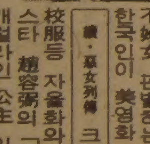
『선생님은 그동안 사람보는 눈까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수지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래, 개 눈엔 뭐 밖에 안보인다 이소리겠다?』

유원장이 눈을 부라리다가 곧 풀이 죽었다.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31일자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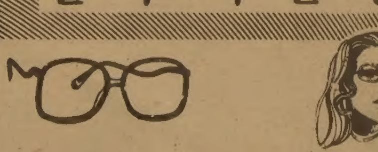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위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533-2361

일본 秋乙師団 탄약·무기고 격파하라

秘話 平壤學兵사건

1월20일을 예사로 넘기는 사람이 많다。 일제 末期 고등교육을 받던 韓國의 知性을 말살코자 日本위정자들이 우리 專門·大學生을 學兵이라는 이름으로 太平洋전쟁의 전쟁터로 몰아넣던 날이 바로 37년전의 1월20일이다。 悲憤을 안고 日軍에 끌려갔던 學徒들의 日軍에서의 行蹟은 多樣하여 숨한 秘史가 있었으니 그一部로 「平壤學兵사건」을 소개한다。

李 容 相

◇필자 李容相씨

滿洲에 있는 獨立軍과 합세
朝鮮獨立위해 擧事키로 계획

3·1運動을 유발케한 「東京2·8學生獨立宣言」은 光州學生事件과 함께 日帝下의 대표적인 抗日學生運動이었다。 또하나 잘 알려지지않은 平壤學兵事件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가르치며 반성을 주었다。 祖國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와 祖國을 배반한 非理의 對峙가 實證됐기 때문이다。

日帝末期 學兵이라는 이름으로 日軍에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대학생과 전문학생들이 部隊와 彈藥庫·武器庫등을 爆破하고 추격하는 日本軍과 싸우며 韓·滿國境에 진출, 滿洲에 있는 獨立軍과 합세한 다음 나라안에 있는 애국시민들까지도 궐기시켜보자는 웅대하고도 장한 기도가 바로 平壤學兵事件이었다。

1944년 當時 平壤師團을 秋乙師團이라고 했다。 師團位置가 바로 平壤東南方 4㎞地點인 秋乙平野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平壤師團隷下 각부대에는 그 해1월20일에 입대한 朝鮮人學兵들이 있었는데 대구분은 이미 北支로 끌려갔고 平壤에 남은 수는 1백명미만이었다。

그들은 憲兵과 警察과 親日앞잡이들의 강압에 못이겨 강제로 끌려 나왔던것이다。 日帝의 말단주구들은 할당받은 수보다 더많은 學兵을 끌어내고자 규정에도 없는 전년도졸업자나 理工系학생들까지도 협박하여 지원서에 날인시켰다。 기피자는 그의 부모를 유치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행방을 대라고 욱박질렀다。

그렇게 끌려간 朝鮮學生들이 어찌 日本에 충성할수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피끓는 젊은이들로서 日帝에 시달려온 조국을 한탄하며 기회를 노리는 抗日·反日의 知識人들이 아닌가。

그들은 몇달의 初年兵훈련을 마치고 군대생활에 요령도 생기자 부대매점에서 서로 만나 전황과 국제정세 그리고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런 시간이 거듭되다보니 자연히 깊이 담아둔 眞心을 토하게됐다。 그것은 결국 朝鮮獨立을 위해서 일제히 궐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극비리에 다음과같은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첫째, 생명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다。

둘째, 일체의 사상을 초월, 단결한다。

세째, 조직에 절대 복종하며 동지애를 굳힌다。

이러한 결의아래 그들의 비밀조직은 총책임자에 최연장인 金完龍(中央大)、참모장에 朴性和(早稻田大學)、작전참모에 全相燁(平壤大同工

◇일제의 총받이로 강제로 學兵에 끌려가는 조선인 학생들。

金完龍이 總責맡아 各聯隊責둬 秘密조직
女學生·간호부등을 통해 秘密연락網취해

專), 보급참모에 崔某(中央大), 정보참모에 李道秀(宮崎高農)를 뽑아 각 연대에 책임자를 두었다。

자유가 없는 그들은 면회온 가족들을 통하거나 軍被服廠에 동원된 西門高女·正義高女의 조선인 여학생을 통하거나, 秋乙육군병원의 조선인간호원을 통하거나, 피병으로 입원한 동지의 병실을 연락처로 정해 타부대와 부지런히 연락했다。

日本軍隊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었다。 그 아성속에서도 궐기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그들은 오직 죽어도 民族과 祖國을 위해서 뜻있는 죽음을 택하자는 순수한 열정뿐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學兵들의 뜻이 두갈래로 갈라졌다。

急進積極派는 일시에 궐기하여 平倉里에 있는 무기고를 폭파하자고 했고, 또 다른 의견은 일단 부대를 탈출, 韓·滿국경 산악지대에 집결, 日本軍배후에서 遊擊戰을 전개하면서 사태를 관망하자는것이었다。

參謀들은 숙의를 거듭한끝에 두 안을 절충시켜 가능한한 부대와 武器庫·彈藥庫등을 폭파한 다음 개별행동으로 平壤北東方 陽德에 있는 北大峰에 모여 狼林山脈을 타고 劍山嶺을 거쳐 長津湖에 이른다음 赴戰高原—元豐—黃水院—甲山—鳳頭里를 거쳐 韓·滿國境인 普天堡에 도달한다는 작전을 구몄다。

普天堡에는 朝鮮獨立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며 獨立軍과 합세하는데 성공하면 국내 공작도 펴자는 심산이었다。

10월1일은 영시를기해 궐기할—그들은 드디어 결행날짜를 결정했다。

10월1일은 舊曆 秋夕。 궐기의 날을 秋夕으로 택한것은 滿月의 달빛을 이용하자는 것과 秋收전의 옥수수밭을 隱避物로 삼자는 것。

이토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때 朝鮮하늘에 처음으로 B29가 나타났다。 마리아나해전에서는 日本해군이 開戰이래의 대참패를 당했다。

그러한 상황속에 平壤師團은 南方정글전에 대비한다며 赴戰高原밀림지대에서 대규모 연습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師團병력의 태반이 투입됐다。

여기에 참가했던 보급참모 崔某1등병은 어느날 연습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때 말위에서 新高山타령을 목청껏 불러댔다。 궐기를 앞둔 긴장속에서 그랬을 것이다。

日人上等兵이 한사코 朝鮮노래를 제지시켰으나 崔는 점차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上等兵은 숙영지에 도착하자 계

〈무슨일이 터졌구나。〉

朴이 급히 부대로 돌아가니 내무반에는 이미 헌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林英鎬의 밀고로 헌병대는 총동원되어 학병들을 내사했고 名單과 움직일수없는 確證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검거선풍으로 거사에 가담했던 66명전원이 체포됐다。

秋乙憲兵隊부대장 岸本准尉지휘아래 조사가 시작됐다。 木刀나 곤봉으로 사정없이 후려갈기고 올챙이배처럼 튀어나오도록 하는 소위 「물을 먹인다」는 정도는 약과였고 영하30도의 寒風속에 발가벗겨 몇시간씩 꿇어앉혔다。

그 아픔, 그 애탐을 뭣에 비할까보냐。 꼬박 밤을 새우는 고문에 학병들은 기절했다。 먼 감방으로부터 젊은 여성의 까무러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은 학병들의 거사를 돕다가 검거된 朝鮮人간호원이 아니면 부대안의 연락을 맡았던 여학생들의 고통소리였다。

악몽같은 고문으로 한달 두달이 지난 어느날 영창에서 학병 한사람이 도망쳤다。 헌병대는 물론 전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결사적인 모험자는 全相燁이었다。 그는 平壤大同工專재학중 끌려왔다。 그는 平壤에서 여학교에 다니는 여동생 집구들이 부대에 있는 피복창에 근로동원된 기회에 비밀히 연락을 통해 도주한 것이다。

그는 밤중에 산을 타고 10일후 平壤에서 40리 떨어진 자기집 뒷산에 도착, 정황을 살피다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섰다。

기급을 한 어머니는

『네가 도망쳤다고 헌병들이 집을 샅샅이 뒤지고 어제는 네 형을 잡아갔다』고 했다。

全은 平壤여학생대표에게 전하는 편지를 맡기고 변장한후 滿洲에 있을 獨立軍을 찾아 北上했다。

全相燁은 달아나다 다시 經警에게 붙잡혔다。 꽁꽁 묶여서 끌려간곳은 中江鎭憲兵隊分遣。

국경지대의 정월은 영하40도였다。 유치장에서 떨고있는데 伍長(下士)이 주위를 살피더니

『용케 여기까지 도망왔군요。』 그의 말은 위로하듯 부드러웠으나 헌병이 한 말은 분명히 朝鮮말이 아닌가。

놀란 全相燁은

『우리 동포구려。 고향은 어디메요。』

伍長은 빙긋이 웃고 사라졌다。

그날 밤 全에게는 담요 7장이 들어왔다。 그 伍長의 호의임에 틀림없다。

全은 탈출 2개월만에 다시 그 지긋지긋한 秋乙憲兵隊에 구치되고 대신 인질구금됐던 형은 석방됐다。

全이 압송되어 옴으로써 학병전원은 6개월간의 고문과 예심을 거쳐 45년 5월 軍法會議에 회부됐다。 그러니까 해방 4개월전의 일이었다。

이 軍法會議의 호칭은 朝鮮軍管區 臨時軍法會議 平壤師團管區法廷이라고 했다。

45년6월10일 드디어 判決이 내렸다。

裁判長 大橋大佐는 전원에게 유죄를 언도했다。

擧事가담 66명 전원 被逮、가혹한 拷問받아
45년6월 軍法會議에서 全員에게 有罪判決

◇당시의 學兵들。 이제는 모두가 독립유공자가 됐다。 사진 ❶으로부터 崔正守, 金完龍, 朴性和, 全相燁 제씨。

▲朴性和(永友洋行경영)=징역13년
▲金完龍(前少將·公證人)=징역9년
▲全相燁(獨立有功者協會)=징역8년
▲盧永濤(在北)=징역8년

해방후 동 사건주모자였던 朴性和씨(現獨立協會理事)가 끈질기게 손쓴결과 지금은 그 判決文이 福岡檢察廳에 보관중임을 알고 78년9월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獨立有功者審査委員會는 재판기록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심사한 끝에 80년 光復節을 기해서 그들 代表를 國家獨立有功者로 施勳했다。

그들도 이제는 60이 되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하직전에 당시 義理의 協調者였던 高씨(食糧提供者)、金漢福씨(길안내役)、韓간호원(秘密連絡員)등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더구나 獨立有功者라는 名譽를 받고보니 더욱 그 의로운 세사람이 그립고 감사해서 죄송하다는 것이다。

36년만의 再會、누가 그들의 소원을 풀어 줄수는 없을까。

년도졸업자나 理工系학생들까지도 협박하여 지원서에 날인시켰다。 기피자는 그의 부모를 유치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행방을 대라고 욱박질렀다。

그렇게 끌려간 朝鮮學生들이 어찌 日本에 충성할수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피끓는 젊은이들로서 日帝에 시달려온 조국을 한탄하며 기회를 노리는 抗日·反日의 知識人들이 아닌가。

그들은 몇달의 初年兵훈련을 마치고 군대생활에 요령도 생기자 부대매점에서 서로 만나 전황과 국제정세 그리고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런 시간이 거듭되다보니 자연히 깊이 담아둔 眞心을 토하게됐다。 그것은 결국 朝鮮獨立을 위해서 일제히 궐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극비리에 다음과같은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첫째, 생명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다。

둘째, 일체의 사상을 초월, 단결한다。

세째, 조직에 절대 복종하며 동지애를 굳힌다。

이러한 결의아래 그들의 비밀조직은 총책임자에 최연장인 金完龍(中央大)、참모장에 朴性和(早稻田大學)、작전참모에 全相燁(平壤大同工

金完龍이 總責맡아 各聯隊責둬 秘密조직
女學生·간호부등을 통해 秘密연락網취해

專), 보급참모에 崔某(中央大), 정보참모에 李道秀(宮崎高農)를 뽑아 각 연대에 책임자를 두었다。

자유가 없는 그들은 면회온 가족들을 통하거나 軍被服廠에 동원된 西門高女·正義高女의 조선인 여학생을 통하거나, 秋乙육군병원의 조선인간호원을 통하거나, 피병으로 입원한 동지의 병실을 연락처로 정해 타부대와 부지런히 연락했다。

日本軍隊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이었다。 그 아성속에서도 궐기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그들은 오직 죽어도 民族과 祖國을 위해서 뜻있는 죽음을 택하자는 순수한 열정뿐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學兵들의 뜻이 두갈래로 갈라졌다。

急進積極派는 일시에 궐기하여 平倉里에 있는 무기고를 폭파하자고 했고, 또 다른 의견은 일단 부대를 탈출, 韓·滿국경 산악지대에 집결, 日本軍배후에서 遊擊戰을 전개하면서 사태를 관망하자는것이었다。

參謀들은 숙의를 거듭한끝에 두 안을 절충시켜 가능한한 부대와 武器庫·彈藥庫등을 폭파한 다음 개별행동으로 平壤北東方 陽德에 있는 北大峰에 모여 狼林山脈을 타고 劍山嶺을 거쳐 長津湖에 이른다음 赴戰高原—元豐—黃水院—甲山—鳳頭里를 거쳐 韓·滿國境인 普天堡에 도달한다는 작전을 구몄다。

普天堡에는 朝鮮獨立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며 獨立軍과 합세하는데 성공하면 국내 공작도 펴자는 심산이었다。

10월1일은 영시를기해 궐기할—그들은 드디어 결행날짜를 결정했다。

10월1일은 舊曆 秋夕。 궐기의 날을 秋夕으로 택한것은 滿月의 달빛을 이용하자는 것과 秋收전의 옥수수밭을 隱避物로 삼자는 것。

이토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때 朝鮮하늘에 처음으로 B29가 나타났다。 마리아나해전에서는 日本해군이 開戰이래의 대참패를 당했다。

그러한 상황속에 平壤師團은 南方정글전에 대비한다며 赴戰高原밀림지대에서 대규모 연습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師團병력의 태반이 투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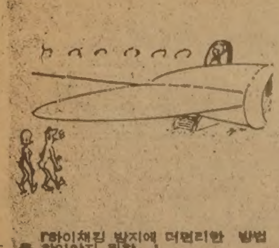
여기에 참가했던 보급참모 崔某1등병은 어느날 연습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때 말위에서 新高山타령을 목청껏 불러댔다。 궐기를 앞둔 긴장속에서 그랬을 것이다。

日人上等兵이 한사코 朝鮮노래를 제지시켰으나 崔는 점차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上等兵은 숙영지에 도착하자 계

◇일제의 총받이로 강제로 學兵에 끌려가는 조선인 학생들。

海外걸작漫畫


『하이재킹 방지에 더편리한 방법을 찾아야지, 원참。』
"Surely there must be an easier way to prevent hijackings."

『다소간 설득이 필요했지만 끝내는 당신아버지가 승낙하고 축하해주더군/』
"It took a little persuasion, but your father finally gave us his consent and blessing"!

史의名言

紀元前13世紀경 이스라엘의 民族的英雄, 豫言者。 古代이집트에서 노예상태에있던 이스라엘 백성을이끌고 脫出,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모세의 十戒」는 잘알려짐。

主여 나는 본시 말에 능한자가 아니었나이다。
내 입은 무겁고 혀 또한 무겁습니다。

主여 제입은 무겁고 혀 또한 무겁나이다

모세 〈生殁年未詳〉

× × × ×

舊約聖書 出 이집트記를통해 흥미있는 것은 모세 (Moses) 의 性格은 물론, 그에 이끌려 이집트를 脫出하던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이다。

이스라엘民族은 오랜歲月, 이집트의奴隷로 강제노동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人口가 차츰늘어 威脅이 되자 이집트王은 이들로부터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일것을 명했다。

모세도 태어남과동시에 갈대상자속에 넣어져 江에버려졌는데 王女가 이를발견, 키웠다한다。 그는 이같은運命을 겪은사람이다。

成長후 여호와의 命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거닐고 이집트를탈출, 神의 選民으로 보다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紅海를건너 새땅을 찾아 방황한다。 出이집트記엔 따라서 奴隷가 어떻게해서 神의 選民이 되느냐, 어떻게 自由를 얻을수 있느냐, 말하자면 奴隷狀態를 主題로 하고있다。

그런데 이들은 苦難이 조금만 있어도 곧 모세에 대해 不滿을 터뜨렸다。

이집트에 그대로 있으면서 고기와 빵을먹고 지내는것이 오히려 나을것을, 이렇게 曠野에서 굶어죽게됐으니 옛날이 더 났다는등 원성이 높았다。

이것이 「奴隷」의 本質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이 人間의 공통적인 무서운타성이다。 모세의 性格은 이 곤난속에서 형성된다。 그는 「참는사람」이었다。 神에의 忍從은 民衆에의 忍從을 뜻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民族의 不平不滿에대해 참으며 모든 方法을 다해 인도하고있었다。

引用의말은 이런試鍊을 겪은때의 그가 여호와에 한 말이다。

그는 民衆을 이끄는데 합당한 指導者로서의 雄辯을 갖지않았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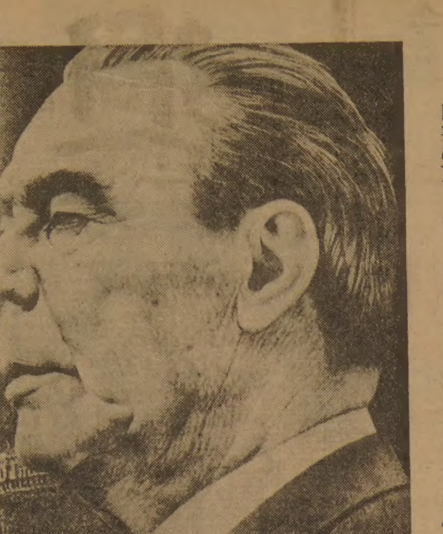
말하자면 訥辯이었는 사람이었으나 이와같은 人物이 갖는重厚하고 忍耐心이강한면모를出이집트記의 大叙事에서 잘엿볼수있다。

神의 十戒를 받는데 합당한 人物이었다。 동시에 奴隷로부터 神의 選民에의 길이란, 이스라엘백성뿐아니라, 그것은 個個人의求道의 相도된다는것을 이이야기는告하고있다。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416) 533-2361~4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브레즈네프는 核버튼을 누를것인가

緊張더해가는 國際情勢…超強 소련의 검은속셈을 파헤친다 ㊤



◇새해 들어 76세로 17년째 소련을 지배하고 있는 브레즈네프。그는 政事를 처리할 때 혼자서 보다는 주위 막료들과 의논해서 결정짓기를 좋아한다。

76세—人生 최후의 투쟁에 도박을 건 브레즈네프는 核전쟁의 버튼을 과연 누를 것인가. 핵전쟁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긴장속에서 소련 공산당 書記長 最高會議 幹部會議 議長 레오니드·이리치·브레즈네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세계의 관심은 온통 그에게로 쏠려 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의 폴란드 위기, 1981년 소련의 SS—20에 대한 레이건의 中性子탄 歐洲 배치계획, 사다트 암살에 따른 中東 재편성등 근간의 국제정세는 긴장의 度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호응해서 세계의 매스컴에서는「소련 위협론」을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한편 유럽 각지에서는 핵전쟁 준비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데모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핵전쟁은 일어날것인가. 국제긴장의 주역인 소비에트란 超大國을 거느리며 17년을 지낸 브레즈네프의 검은 속셈은 어떤것일까.

그는 지난해 10월 21일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승자가 될것을 기대하고 핵전쟁을 시작하는것은 자살을 결심한 者만이 할 일』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政事처리 스타일을 중심으로 그 깊은 내막을 살펴보자.

브레즈네프는 73년 訪美 직전 모스크바 주재 美國記者團과의 회견에서 크렘린의 정책 메이커 집단인 黨政治局의 회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99%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만사를 의논해서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문제는 여유를 두고 회의장 밖에서 타협했다.』

러시아語로「타협한다」는 말은「다가바—리 바치」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계약이나 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회의장 밖에서 타협할 때에는, 회유책이나 읍소작전을 벌일 때도 있고, 협박과 뇌물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類의 술책을 부려도 역시 완화책을 쓴다는데 오늘날 크렘린의 고민이 있다.

그것은 어쨌든, 크렘린에는 현재 黨政治局의 정책에 감히 異論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 스스로 독불장군이 되려거나, 스스로 쫓겨날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大勢에 순응하게 되어있다.

經濟悪化로 體制의 神話깨져
世界매스컴 威脅論 연일報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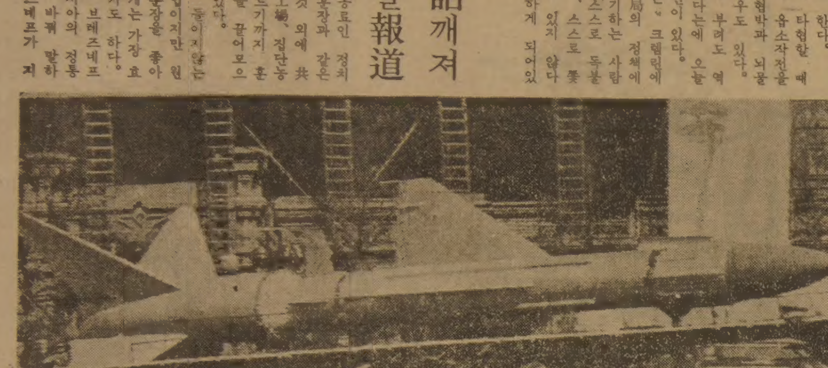
순응파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기분 좋고 안전한 환경도 없다. 소비에트 체제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黨·政府 관료들에게 브레즈네프가 의외로 인기가 있는 비밀도 거기에 있다.

독재체제를 지탱하는 비밀경찰이 스탈린 시대처럼 신통력을 잃어버린 오늘날, 크렘린 최고의 지위로 스탈린에 이어 17년간의 장기집권을 계속해오고 있는 브레즈네프의 비결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레즈네프는 동료인 정치가나 군인에게 훈장과 같은 영예를 부여하는것 외에 共和國, 州, 都市, 工場, 집단농장,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훈장을 남발, 인심을 끌어모으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밑천을 들이지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원래부터 명예나 훈장을 좋아하는 러시아인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회유책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즈네프는 틀림없이 러시아의 정통파라고 할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브레즈네프가 지닌 러시아적 人德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세계를 위협하는 소련의 핵탄두 미사일。사면초가의 궁지에몰린 브레즈네프는 위기를 벗어나기위해 핵전쟁의 버튼을 과연 누를 것인지…。

그의 이러한 음흉스런 人德은 또 歐美의 크렘린연구가가 드니에풀·마피아라고 이름 붙인 브레즈네프 人脈의 형성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레즈네프는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드니에풀江 유역의 市경 州의 소비에트 의장, 黨書記로서 政界에 첫데뷔했다.

그가 흐루시초프에게 발탁되어 中央政界에 진출할 계기를 얻은것도 이 시대의 상사 코로도첸코가 흐루시초프의 직계였던 덕택이기도 했지만, 브레즈네프는 이 무렵의 부하와 친지 다수를 자신의 출세와 더불어 중앙의 요직에 등용했다.

크렘린의 세번째 권력자인 키리렌코 黨政治局員겸 우크라이나 黨第一書記, 치호노프黨政治局員겸 首相, 안드로포프 政治局員겸 國家保安委(KGB)議長, 이밖에 주요 요직들 거의 모두가 이러한 측근출신으로, 브레즈네프人脈을 이루면서 크렘린에 은연한 세력을 형성했다.

브레즈네프人脈중에는 생전에 눈부신 활약을 하다가 고인이 된 요직인사도 허다하다. 더우기 지난해 봄, 제26회 黨大會에서 새로 黨中央委에 들어온 측근도 한두명이 아니다.

이러한 人脈의 형성, 연줄과 연고에 따른 登用인사는 레닌,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로 代를 이어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소비에트 理想의 러시아적 風化라고 할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조직됐다는 黨·國家 조직이 비대화해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을 브레즈네프가 낡고 덜 돼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땜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브레즈네프는 政事 처리에 대해 혼자 결정하는것을 피하고 주위 막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기를 좋아한다.

스탈린 등 소수의 두드러진 독재자를 제외한 러시아 역대 지도자의 대다수가 이같은 간접적 통치방식을 취해 왔지만, 브레즈네프도 이러한 다수파 계열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는 정통파라고 할수 있다.

물론 이러한 브레즈네프의 러시아적 정치가 세계에 그대로 통용될 리도 없다. 알고 보면, 西方에의 패스포트를 손에 넣기 위해서 결단을 좋아하지 않는 그가 일생일대의 非러시아적 결단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단은 사회주의 경제의 독립과「영광이 있는 고립」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결단을 통해 그가 공산주의의 터부를 깨뜨린 점은 역대 지도자들의 용단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서 브레즈네프가 데탕트 외교에서 이렇게 美·蘇 협조를 궤도에 올린것도, 全유럽安保會議를 실현단계로 몰아친 것도 이러한 결단의 결과라고 말해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소련이 미국에 대항해서 쌓아올린 거대한 核戰力과 核戰爭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중하기 짝이 없는 브레즈네프가 스스로 一生一代의 결단을 내린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波사태는 蘇自體의 死活문제
地位유지위해 매派와 손잡고

잘 아는대로 소련경제는 옛 러시아제국으로부터 이어 받은 판도 위에 시종일관 고용증대, 생산설비 확대, 천연자원의 동원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확대하면서 성장을 꾀해 왔다.

이같은 표면적 성장에는 黨·政府 관료의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 방식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발휘, 성장을 이룩해왔다. 이래서 美國 다음의 超大國으로 커가는 가운데 소련의 꿈이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따라 잡겠다고 호언하던 당시의 얘기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이같은 허세에만 집착했던 성장은 벽에 부딪쳤다. 그 원인은 첫째, 인구증가율의 저하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 조달이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 둘째는 생활향상에 따른 국민의 소비욕 비대화와 군사적 필요의 진퇴양난에서 종전처럼 미사일만을 선택할수가 없으며, 미사일과 버터를 아울러 택하기 위해 생산설비투자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집무실 안에서의 브레즈네프。東歐공산국가들의 분쟁으로 궁지에 몰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세째로 자원대국 소련에서 자원부족과 물가앙등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었다.

그 때문에 60년대 이래,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79년에는 불과 2%로 戰後최저선에 이르렀다.

낮은 성장과 불황은 서방측 정권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였지만 소련型 사회주의라고 하는것은 국민의 全공무원化, 失業 회피, 물가앙등의 억제, 생활비 지원, 교육 및 의료의 무료제, 年金, 사회복지의 충실등 어느 것을 취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코스트가 높게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近年처럼 2~3%의 경제성장률에서 국민생활 향상이나 國富의 증대를 기대할수는 없다.

이제까지 이런 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지배적 지위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의 神話가 설득력을 지닐수 있었던것은 오로지 소련경제 덕분이었다.

최근처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富國强兵은 커녕 현재 실시중인 사회보장제도조차 유지가 곤란해지면서 소련사회의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의 소련경제는 계속되는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국민에게 고기와 감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소련型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黨權力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작년 여름 이래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근본 원인도 거기에 기인할 뿐 아니라, 그것은 크렘린에 있어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 체제와 권력의 死活이 걸린 소련자체의 문제가 되었다.

◇1968년 당시의 소련 지도자들。앞줄 왼쪽부터 코시긴, 브레즈네프, 포드고르니, 수슬로프。

그러나 권력의 독점을 金科玉條로 알고 기득권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黨·政府 관료들의 방해로 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 방식이 경제근대화를 막는 혹이 되어 오히려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것과, 경제개혁에는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것에 일찌기 눈을 뜨고 國政 전반의 개혁에 나선 체코 지도부의 프라하의 봄(68년)을 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탱크로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70년대에 들어서서 브레즈네프는 이 숨막히는 사태를 이번에는 서방측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으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쳤다. 이것은 밖으로부터의 힘에 의해서 정체된 소련경제의 활성화를 꾀해 보려고 한 것으로 형태를 바꾼 성장방식에의 복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데탕트의 경제적 겨냥이었다.

데탕트바라다 難處한일 당해
냉전 再燃…核對決 할지 몰라

72년, 브레즈네프가 北베트남 폭격과 항만 봉쇄를 계속하는 미국 대통령 닉슨을 굳이 정중하게 접대해서 모스크바로 모신 다음, 다음해 답례로 미국을 방문, 레이건 대통령과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해 보인 이유의 하나는 거기에 있다.

소련은 브레즈네프 지휘 아래 이른바「黨을 받들고 외적은 물리친다」는 입장에서 黨을 높이고 나라를 개방하는 쪽으로 궤도 수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데탕트라고 하는 이름의 開國으로 전통적인 쇄국경제에 결별을 고한 소련은 싫든 좋든 서방세계의 경제적 메커니즘에 말려들어 그 변동의 파문을 직접 뒤집어 쓰게 됐다.

73년 가을, 中東전쟁으로 서방측 경제를 덮친 석유쇼크의 파문이 그대로 소련에도 파급된것이다.

그 파문에 휩쓸려서 비틀대는 브레즈네프의 발치에 바싹 붙어 크렘린 안에서는 매派가 産軍複合體(소련의 산업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집단)의 지원 아래 활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서방측의 경계심을 데탕트의 자장가로 잠재우는 한편 군사력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아프리카, 中近東, 西아시아, 東南아시아에의 세력확장을 기도했다.

무너지기 쉬운 제3세계에 진출해 경제의 성장을 피하는 전통적인 확장정책으로 되돌아오게 하기도 했다. 이것이 중국이 말하는 이론바, 소련사회 제국주의의 실제 모습이고, 아프가니스탄 침공(79년)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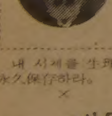
데탕트 경제에서 차질을 빚은 브레즈네프는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派의 이니시어티브에 동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매派의 야망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데탕트의 꿈으로부터 깨어난 서방측은 돌연히 경계심을 높여 군비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대로 나간다면 냉전의 재연, 아니면 핵대결로 발전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는 또 곧 곤경에 빠진 소련경제를 점점 압박하든가, 소련의 안전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브레즈네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매派 노선의 실패를 기화로 크렘린에서의 주도권을 도로 찾아 데탕트의 구축에 나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 차에 공교롭게도 폴란드 문제가 또다시 머리를 들었다. 따라서 브레즈네프는 지금「난처한 때에 난처한 일이 겹쳤다」고 지극히 난감해 있다. 〈整理=白承悅기자〉

구독신청 ☎ 533—2361

南岡의 名言



33人중의 一人, 교육가, 號는 南岡。平北定州출신。1906년 五山學校설립。1919년 三一獨立運動에 참가 3년刑이 선고됐고 1922년假出獄, 조선교육협의회간부。62년 建國功勞훈장 重章추서。

내 시체를 生理標本을 만들어 五山學校에 永久保存하라.

× × ×

내몸을 標本만들어 五山學校에 보존하라

李昇薰 〈1864~1930〉

南岡 李昇薰의 마지막 遺言이다。그의 유해가 해부되어 京城大學부속병원에서 거의 표본제작이 완성단계에 있을 때 돌연 총독부로부터 허가취소가 내려, 다시 유해를 定州五山으로 모시고 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城峴동쪽에 안장했다。

日帝는 생전의 南岡못잖게 생리표본된 사후의 南岡이 더두려웠는지 모른다。南岡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는 [illegible]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주도아니고 영웅도아니고 학자도 [illegible] 아니었다。[illegible] 무궁을 남 [illegible] 못했고 갖은 간난과 신고를 맛보면서 자기를 상인의 자리에 끌어올렸다。

그러나 南岡의 一生을 지배한것은 겸허하고 맑은 서민정신이었다。

이서민정신이 그를 이땅과 이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었고 이사랑이 그를 헌신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다시 新民會, 五山學校, 濟州島유배, 105人事件, 新敎信仰, 獨立宣言으로 이끌어 不滅의 像을 歷史위에 아로새겼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도 10세전에 천애고아가된 그는 定州 굴지의 豪商 朴淩權경영의 유기상점의 사환으로 채용돼 여기서 豪商으로 자랄 기량과 금도를 닦고 배웠다。

그는 만난을 무릅쓰고 일마다 人生살이를 몸소 배우면서 투지와 인내가 곧 成功과 영광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터득한다。자본을 축적한 南岡에게 民族觀 國家觀을 심은 사람은 島山 安昌浩였다。

南岡은 磁器회사를 설립, 이곳의 수익을 獨立運動자금으로 충당한다。그리고 솔선해서 禁酒, 斷煙, 五山면龍洞에 講明義塾을세우니 이가 곧 五山學校의 전신이다。

五山學校는 그저 新學問만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아니었다。그곳은 民族敎育의 요람지요, 民族獨立運動의 집결지로 성장했다。

南岡은 정열과 투지로 찬 人物이었다。한번 옳다고 결단을 내리면 그 義만을 위해 호랑이처럼 달렸다。사람들은 그를 호랑이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떨어져사는 夫婦 美에 70萬쌍넘어

LA와뉴욕에살며 月2회씩 男便이찾아
生活상담등 電話料만 56만원支拂하기도

"子女교육 지장등 神經 더써"

거의 아내勤務地 남편과 달라

케이티·롱(32)과 밥·롱(37)은 8년간 교제끝에 결혼, 결혼생활이 4년째로 접어든 부부. 그러나 아직 같은도시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본적이 없다. 아내는 뉴욕 WABC·TV의 뉴스캐스터이고 남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TV프로듀서로 일하고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일주일내내 프로그램제작에 매달려있어야 하기때문에 남편은 한달에 두번씩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위해 뉴욕으로 날아간다. 나머지 결혼생활은 전화로 행해진다. 때문에 지난달 전화요금이 8백달러(韓貨56만원)에 달했다. 이들 부부는『떨어져 살아서 좋은것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나 결혼생활에 장애가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들처럼 직장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가 70만쌍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항상 유머감각을 잃지않고, 비행기시간표를 기억해야하며, 잦은 장거리 통화로 인한 귀찮음이의 고통을 견디어야하며, 상대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조사에 의하면 떨어져사는 부부의 절반정도가 아카데미한 분야에서 일하고있는데 사업, 政治, 쇼비즈니스, 언론등의 분야에서 그숫자가 계속 늘고있다. 학력도 높아 약90%가 大卒이상. 가족수입은 연평균 3만~4만달러에 이른다.

많은 경우 직장을가진 아내가 자리를 옮겨야 승진, 승급등에서 더 발전을 할수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전근을 가게되어 부부가 따로 살게 된다. 식당체인인 호워드·존슨社의 처녀성 부회장 도리스·에델슨(51)의 경우 결혼생활 32년에 5번째 떨어져 살고있다. 그가 전근하게되었을때 남편은 쾌히 찬성했으나 오히려 회사의 회장이 그들 부부의 별거가 결혼생활에 해를 끼치거나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떨어져 사는 부부의 좋은 점은 아내가 일을 갖고 자기발전을 할뿐아니라 보다 나은 가정의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양쪽 도시에서 친구를 사귈수 있고, 항상 그리워하며 늘 상대를 새롭게 느낄수 있고, 대화의 범위도 넓어진다.

한편 작게는 주치의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가족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 性생활의 부조화, 심리적·육체적 피곤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가장 큰문제는 자녀교육이다.

아빠와 함께 살면서 일요일마다 공항으로 엄마를 배웅가던 2살짜리 여자아이는 비행기만 보면『엄마』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회학자들은『떨어져 살아도 좋은 경우는 7년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아이가 거나 다 자란 경우』라고 기한다.

『떨어져 사는 부부는 새로 결혼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만 헤어져 사는데 대해서 죄의식과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메사추세츠大學심리학교수 나오미·거스텔씨는 말한다.

또한 많은 시간을 혼자 사는 이들 부부는 각자가 너무 자신만의 세계에 집착하며 독신의 상태를 닮아가고있다는 것도 헤어져 사는 부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넣기때문에 오히려 함께 사는 부부보다 婚外정사를 갖는 경우는 훨씬 적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타임誌】

한국의 妓生 ⑤

염라大王 差使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한국인들은 男女의 交合이 자연의 섭리이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性學을 신봉한 나머지 高度의 房術을 익힌 妓生을 필요로 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本能을 마음껏 발산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過慾을 禁忌視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결코 음탕하지 않았으며 節慾함으로써 精精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五妙

이러한 한국인의 性觀念이 잘 表出된 일화가 있다. 오성 李恒福이 젊었을 때 道人 南宮斗를 만났다. 그때 斗의 나이가 80여세였으나 갓 40된 사람처럼 보였다.

오성이 물었다.

『선생의 춘추가 90에 가까운데 정력이 어린 아이와 같으니 어떤 術法으로 그리 되셨는지요. 秘法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의 술법이란 별것 아니오. 오직 女色을 멀리 했을 뿐이오.』

『아니 人間事에 여색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읍니까. 말씀하신대로 여색을 멀리 하였다면 비록 천년을 산다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읍니까?』

『그대의 말은 말이 안되오.』

그러자 오성이 반박하고 나섰다.

『꽃같은 얼굴이 빛나며, 고운 살결이 반짝이고, 청아한 노래와 묘한 춤이 구름을 막고, 눈(雪)을 돌이키며 애교 있는 말과 어여쁜 말씨가 구슬이 우는 듯하며, 膩脂와 粉의 향기가 마음과 코에 꾸닷쳐 어지러우며 아름다운 꽃 자리에 멋있는 맨시 지극한 어여쁨이 가득하여 정을 이끌며 五妙를 더하니 廣平의 鐵石心腸이라도 어찌 動하지 않겠읍니까.』

남궁 도인이 말한다.

『五妙가 바로 염라대왕의 差使인줄 왜 모르시오.』

오성이 대답하다.

『염라대왕 궁중이란 지엄정 어찌 한 여자도 없겠읍니까?』

남궁도인이 웃기만 하였다. 〈續禦眠楯〉

女色이 長生의 害素임은 남궁과 같은 도인 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식이었다.

玄默子 洪萬宗(生沒年代未詳 仁祖孝宗代·1623~1659·學者)은 저서 〈蓂葉志諧〉에다 色談을 다수 소개하고 있는데 〈旬五志〉에서는 女色의 害를 경고하고 있다. 즉,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오직 元氣에 의존할 뿐인데, 이 원기는 술과 色의 害가 제일 크다. 그러니 늙어 갈수록 더욱 이 두 가지를 삼가야 할것이다」하고,

〈색을 피하기는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을 피하기는 화살 피하듯 하라. 빈 속에는 술을 마시지말고 밤중에는 밥을 조금만 먹어라. 즐거운 일은 끝까지 하지 말고 매사를 욕심대로 하지 마라. 기름이 다하면 등불은 꺼지고 골이 마르면 사람이 죽게 되느니 (避色如避讐 避風如避箭 莫喫空心酒 小食中夜飯 樂不可極 慾不可縱 油盡燈滅 髓竭人亡)

라는 警句를 내보이고 있다.

홍만종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명엽지해〉가 破閑用 色談集인데 反하여 〈순오지〉는 養生書로서 道家의 神仙術을 다수 소개하고있다.

그는 두권의 저서를 모두 病中에 집필하였는데 아마도 過色으로 병을 얻어 후회한 끝에 反色論者가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예부터 재물을 탐하고 女色을 좋아한 신선은 없다고 뒤늦게 깨달았나 보다.

□혼자 자는게 藥

「젊고 건강한 사람이 房事의 수고로 건강을 잃지 않는것이 녹용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彭祖(養生術의 하나인 導引法을 완성했다는 중국의 仙人)의 말이 한국 養生家들에겐 金言이었다. 金參判 某는 녹용을 많이 먹어 원기가 왕성하다고 뽐냈지만 첩을 여럿 두어 女色에 빠졌기에 나이 겨우 50에 죽었으니 팽조의 말대로라고 李睟光(1563~1628)은 〈芝峰類說〉(卷18)에서 빈정 댔다.

뿐만이 아니다.

盧守愼(蘇齋·1515~1590)이 정승일 때 손님이 찾아 와서 약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혼자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니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다.』 손님이 여색에 상한 病者였기에 그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색에 상한 傷寒病者는 약천 첩을 먹는 것보다 혼자 누워 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노수신은 일흔 다섯에 죽었지만 이수광은 겨우 예순 다섯살까지 살았다.

그런가하면 好色한 탓에 요절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다.

安應世가 그런 사람이다.

안응세는 자가 子挺이고 호는 月窓인데 鷗鷺主人·烟波釣徒·醉鄕(여곽)野人이라고도 自號하였다. 그는 사람됨이 맑고 담박하고 깨끗하며 安貧하고 분수를 지켜 功名에 치우치지 않았다.

仙道와 佛敎를 배우지 않고 바둑·장기를 즐기지 않았다. 시에 능하고 더우기 樂府를 잘 했다. 그의 마음 가짐이 表現된 이런 말이 있다.

「의롭지 않은 재물은 집을 돕는데 그칠 것이요, 의롭지 않은 음식은 오장을 돕는 데 그칠 뿐이다. 그러니 이런 것은 더욱 犯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듯 그에게도 결함이 있었으니 酒色을 좋아 하였다. 그래서 進士에 합격하면 나이 스물여섯살때 요절함으로써 雄志와 재능을 펴보이지 못했다.」〈海東野言〉

가난한 안응세가 그랬고보면 부유한 정승들은 더욱 그랬다.

영의정 成希顔(昌山府院君1461~1513)도 상한병으로 죽었다 한다. 그의 성품은 소탈하고 뜻이 컸으며 조정에 나아가서는 강개(慷慨)하여 구차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학술이 없는데다가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않고 성미가 급하여 화를 잘 냈다. 그러므로 정승으로서의 업적이 신통치않았다.

그런데 몇해 사이에 首相 金壽童·朴元宗·柳順汀·성희안이 연달아 죽자 사람들이 괴이쩍다고 수군거렸다. 김수동은 단아하고 묵중하며 욕심이 적었으나 어질고 유순하기만 하여 유능한 정승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분명히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두 中宗反正의 元勳들로서 임금(中宗)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情慾에 치우쳐 병을 얻은 나머지 연달아 죽은 것이다.

성희안의 경우를 보면 평양기생 申某를 총애하더니 정욕을 너무 쏟아 병을 얻어 목숨을 단축시켰다 한다(52세에 죽었음). 그런데 그 기생은 성희안의 葬禮 날 머리숯고 변발로 도망하여 남의 집에 숨었다가 포졸에게 붙잡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국의 재상의 한 여인의 마음도 헤아려보지 못했다고 비웃었다. 그런데도 성희안은 그 기생에게 반한 나머지 임종하면서 아들 울(蔚)에게 기생의 뒷날을 부탁하기도 했다. 〈해동야언·연려실기술〉

好色亡病이란 말이 더욱 실감나는 케이스는 王들의 短命이다. 여자에 둘러싸여 얼마든지 호색할 수 있었던 朝鮮朝의 왕들은 대부분 삼사십대에 요절했고 오십대를 넘긴 예가 드물다. 더우기 호색중병에는 百藥이 無效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양반이 청년시절에, 주색에 몸을 상하여 늙은 뒤 허리가 아파 견딜수가 없었다.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마침 日本醫員 平元海가 처음 우리나라에 와 있었다. 의술이 제법 뛰어나다고 소문났으므로 一千金을 주고 그를 맞이해왔다. 平元海가 환자를 진맥하고 나더니 빙그레 웃는다.

『이 병엔 약을 쓸 수도 없거니와 침이나 뜸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단 한가지 방법이 있으나 점잖은 분에게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萬事를 명령대로 하겠소』

하므로 平元海가 양반의 여러 妻妾더러 요와 베개를 마루 가운데 놓아놓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였다. 그리고는 양반더러 『내가 시키는대로 하십시오』 한다.

양반이 여자들 위에 벙거숭이로 엎드리게 하고 등을 흔들어 屈伸하는 시중을 하게 하였다. 양반이 그가 시키는대로 하였다. 平元海가 바라보다가 한걸음 물러서면서,

『이런 장난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병이 저절로 나을 겁니다』 하였다 한다. 〈太平閑話滑稽傳〉

아니, 그러면 남궁두 도인의 말마따나 女色이 염라대왕의 差使이므로 性을 외면해야 한단 말인가. 性은 해롭고 거추장스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는 것인가? 아니다.

□相對를 자주 바꿔라

옛 한국인들은 性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즉, 무릇 정욕을 마음껏 추구하여 쾌락에 빠지면 반드시 몸을 손상시켜 병이 난다. 이것이야말로 절제하지못한 荒淫의 해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되 절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자가 지켜야 할 여덟가지 규칙이 있으며, 여자에게는 아홉가지 규정이 있다. 만일 이 규정이나 규칙을 무시하여 마구 관계하면 남자에게 악질 종기가 생기고, 여성은 월경 불순이 되어 여러가지 병에 걸리며 결국엔 목숨까지 잃는다.

그러나 그 길을 잘 알고 관계하면 유쾌하게 즐기고 신체가 건강해지며 생명을 연장시키고 얼굴빛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빛나게 될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名家를 자랑할수록 아들과 딸에게 철저한 性敎育을 실시했다. 그러나 부부의 合房은 여러가지 이유로 제약을 받았고 그나마 快味를 제거시킨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남자들은 아내외에 첩을 거느리고 여종을 건드렸으며 기생과 놀아났다. 그리고는 아내가 앙탈을 부리지 못하도록, 여자는 투기하면 안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옛 한국사회에서 왜 기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나 이유가 자명해진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주 여자를 바꾸는 것이 좋다.

여자를 바꿔야만 불로장수가 가능하다. 만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있으면 여자의 정기가 남자에게 옮아오는 양이 적으며 따라서 효과가 적다. 또한 상대여자도 살이 빠진다. 『한국인의 性醫學과 性敎育에 대하여는 拙著 「한국인의 本能」에서 이미 언급하였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만일 色慾때문에 병을 얻었다면 交合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宿醉를 가시게 할 때 술로 해장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한국의 남성들이 기생제도를 폐지할리가 없다. 더우기 기생들은 房事와 性戲의 전문가들이므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쾌락과 長生을 그들에게서 얻으려 시도하였으며 실제로 얻었다. 『기생의 房術에 대하여는 나중에 詳述할 예정임.』

여담이지만 남자들이 이처럼 자기네들만 쾌락과 장생을 추구하고 아내에게는 무관심하였는데 好色이 인간의 常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탈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숙을 명예씌워 규방에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는 여자끼리 수다떠는 자유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수다스럽다. 〈다음호에 계속〉

全國時代 幕오른 美 프로골프

와트슨, 니클라우스 롤백에 큰關心

◇레이·플로이드

세계 프로 골프계가 태동을 시작했다. 그 선두주자로 지난 10일 미국 프로 투어 제1전인 투손·오픈이 끝났고 앞으로 10월말까지 10개월동안 모두 42개 대회가 개최된다.

그 투손·오픈의 우승자는 프로생활 7년째인 올해 28세의 크레이그·스태들러였다. 금년의 미국 투어 골프계는 全國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암시하는듯한 개막경기였었다.

금년의 미국 투어는 투손·오픈에서 10월말의 디즈니팀선수권 대회까지의 42개 대회이다.

중요경기는 매스터즈(오거스터·내셔널)가 4월8일부터 열리고, 전미국 오픈(패블비치)은 6월17일부터이며 전미국프로(서던·힐즈)가 8월5일부터 열린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파이어스톤)는 8월26일부터 열리게 되어있다.

이상 42개 대회의 상금총액은 작년보다 40만달러 늘어나 사상최고인 1천4백50만달러(약120억원)이다.

작년 한해에 37만5천6백99달러를 벌어서 최초의 상금왕이 되었던 톰·카이트가 2년 연속하여 랭킹1위가 될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안에서 큰화제가 되어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성은 어려울것 같다는 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키가 173㎝, 체중 69㎏이어서 카이트의 몸집이 투어 프로로서는 작은 편이기 때문. 물론 그는 飛距離로 승부하는 타이프는 아니고 작년엔 출전한 26개 대회가운데 10위 이내에 21번이나 오른 견실한 플레이어인데 그렇다치더라도 불과 이대회서밖엔우승하지 못했었으니 상금왕으로서는 이색적인 존재였다.

이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 운이좋아 굴러들어온 왕좌였는데 금년엔 그렇게되지 않으리라는 평이다. 그래서 금년 주목되는 선수는 누군가 하면 성장이 뚜렷한 빌·로저즈이다.

작년의 그는 안정도에서 카이트보다 못했었으나 전英國오픈과 월드 시리즈의 2 빅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최우수선수로 뽑혔었다. 때며(표범)라는 별명대로 로저즈는 샤프한 골프를 하며 컨디션이 좋을 때의 그의 뛰어난 수준은 아무도 따를 자가 없다.

◇영국 오픈선수권대회서 우승한 빌·로저즈가 우승컵을 보이고 있다.

賞金王 후보엔 로저스 有力
다크호스로 플로이드 浮上

금년에30세, 프로생활8년째인데 최근 수년이 가장 원숙한 시기여서 올해엔 더욱 비약할것 같다.

로저즈와 맞먹는 강호는 금년 39세의 베테랑 레이·플로이드이다.

작년엔 자신의 최고기록인 35만9천3백59달러를 벌어 상금 랭킹에서는 2위였으나 상금에 가산되지 않은 봄의 플로리다에서의 시합에서 2연승하여 25만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실수입면에서는 톱이었던 만큼 로저즈에게 두려운 존재이다.

이들의 상금경쟁을 포함하여 최대의 관심사는 톰·와트슨과 재크·니클라우스의 롤백이 이루어 지느냐의 여부이다.

◇톰·와트슨

◇재크퀸·니클라우스

작년도 시즌에 와트슨은 종반에 드라이버가 뻗지 않아 4년간 연속 지켜온 상금왕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4월의 매스터즈 우승을 비롯하여 6월까지는 3승을 거두었으나 후반에 아주 난조에 빠져 상금 랭킹에서도 3위로 끝났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래의 오프 시즌에서 제 컨디션을 찾았기 때문에 금년의 활약은 충분히 기대할수 있는 것이며, 念願인 전미국 오픈과 프로선수권대회의 타이틀을 탈취하려는 야심은 만만하다.

제왕 니클라우스는 재작년에 전미국 오픈과 프로선수권에 우승하여 경이적인 컴백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작년엔 또다시 한번의 우승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야릇한 것은 2승을 올린 재작년의 상금 17만2천달러보다 작년엔 17만8천달러를 벌어 더 성적이 좋았고 평균 스트로크도 작년이 더 낮았다. 이는 그의 실력이 아직도 쇠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인만큼 출전하는 시합을 줄여서 조정한다면 제왕 復位의 소리도 들을수 있을지 모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금년의 미국의 투어 골프는 중견프로의 대두와, 베테랑들의 분전과, 층이 두꺼운 젊은 선수들의 활약으로 파란 많은 한해가 될것 같다.

해외 걸작 만화

◇요술 방망이

◇팡

僑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 DRIVES ME CRAZY!

우리나라 말에 「미치게 만든다」 「미칠 지경이다」라는 표현이있다. 물론 점잖은 말속에 들어갈수야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게마련이다. 지난주에 50불이나 주고 고친 자동차가 또 고장나서 긴요한 약속시간을 놓쳐 낭패한 미국인 친구가 It drives me crazy. 라고했다. 물론 「이차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drive~crazy란 「~을 화나게한다. 미치게한다」의 뜻이다.같은표현으로 It drvies me bananas. 혹은 It drives me up the wall.이라고도한다. 마지막 문장은 하도화가나니까 담이라도 타고 싶다는 미국인들의 독특한 표현이다.

미국인들도 못알아 듣는 기상천외한 slang만 가르치고 또한배우는 사람들을볼때 한심한생각이든다.그런속어가 아니라도좋은 영어가얼마든지 있지않은가. slang이란 영어의 초학도 보다는 어느 정도 궤도에오른 사람이 자주사용되는 slang을 적격적소에 사용법을 알고서 말해야될 것이라 생각된다.

A : Why didn't you show up last night?
B : I couldn't help it. My car broke down.
A : Again? You repaired it last week!
B : I know. It's driving me crazy.
A : Have you thought about buying a new car?
B : Of course, but I can't afford it.
A : 간밤에는 왜 안나타났니?
B : 어떻게할수가 없었어. 차가 고장이 났었지.
A : 또? 지난주에 고치지 않았니!
B : 그래. 정말 미칠 지경이다.
A : 새차사는걸 생각해보았니?
B : 물론 생각해보았지만 그럴 여유가 없구나.

※break down: 망그러지다. driving me crazy: 미치게만든다의 뜻으로 driving me mad(nuts, up the wall)모두 같은 뜻이다.

SUIT YOURSELF.

미국인들 파티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어떤 동포 한분이 초청한 사람에게 Should I wear a tie at your party? (파티에 넥타이를 매고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 보았더니 그 미국인이 Suit yourself. 라고 하였다.

Suit yourself. 는 「마음대로 하다」, 「당신에게 달려있다」란 뜻이므로 그초청자가 한 말은 「타이를 매고 안 매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재즈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고전 음악을 감상하시겠어요?」 Would you rather listen to jazz or classical? 이라는질문에 「당신이결정하십시오」 혹은 「당신마음대로하십시오」의 뜻으로서Suit yourself. 라고 하면 될 것이다.

「고전음악」을 우리는 보통 classic으로 말하기 쉬운데, 회화에서는 classical【크래시컬】이라고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I feel like classical. (고전 음악을 감상하고 싶은데요) 이 문장은I feel like listening to classical music.의 줄어든 말로서 우자 보다는 훨씬 더 구어체의 (colloquial) 표현이 된다.

누가 I feel like golf.라고하였다면 엉터리 영어 (broken English)가 아니라 회화체의 말을 한 것으로, 「골프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Suit yourself. 와 같은 표현으로는 It's up to you. 가 있다.

A : I'd like to hear some music.
B : That sounds like fun.
A : Would you rather listen to jazz or classical?
B : Suit yourself.
A : I feel like classical.
B : That's fine with me.
A :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요.
B :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A : 재즈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고전음악을 감상하시겠읍니까?
B : 좋으실대로 하세요.
A : 저는 고전 음악을 듣고 싶은데요.
B : 저도 좋습니다.

※suit: 적합하다.
colloquial: 구어체의
sound: ~하게 생각되다.
Ex. That sounds wonderful. 훌륭하게 생각됩니다.

본 강의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59)

지난줄거리

도치의 남창소굴을 습격하기 위해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뺀 총찬은 비상구를 막아놓고 손빠른 애들 두명을 불렀다. 지하실까지 내려간 총찬은 도치와 담판을 하지만 도치는 끝까지 성주학과 수향의 납치관계를 털어놓지 않은채 실력대결을 벌인다. 도치도 표창의 명수였지만 총찬의 실력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다. 도치를 한방에 누인 총찬은…

도치는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도치 정도의 전문가라면 이렇게 단 한방에 당한 경우가 처음일 것이다.

『애들 다 묶어라.』

춘삼이 형이 보낸 녀석이 철사줄로 하나씩 묶었다. 도치가 그제서야 겨우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폈다.

『도치, 내 말 명심해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치의 턱을 들고 내가 말했다. 아직도 고통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내 눈빛을 되받고 있었다. 역시 전문가다운 사내였다.

『네가 실력자란 건 안다. 너 정도 실력자라면 지금 좀 좋은 사업을 할 나이란 걸 선배들을 봐서도 알 거다. 이따위로 남창이나 차려서 얼마나 벌겠다고 몸 쓰는 거냐. 너답지 않게 말야.』

도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나 네가 원한다면 맞장 붙어주마. 대신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이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당장 걷어 치워라. 내 말 알겠지?』

도치의 표정이 실룩거렸다.

『이거 고슴도치답지 않구나. 왕년에 내가 존경하던 고슴도치가 아니구나.』

도치는 겨우 일어나 소파에 던져 추저 앉았다. 나는 거물 대접을 하기 위해서 도치만은 묶지 않았다. 그것은 내 예의였다.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

피로운 표정으로 도치가 말했다.

『끝까지 이 짓을 하겠다는 거냐?』

『난 식솔이 많다.』

『그래서 남창으로 돈 벌어 먹여야 한다 이거냐?』

『비록 오늘은 내가 당했지만 무릎 꿇진 않겠다. 난 이걸 계속하겠다. 어느 놈이 뭐라든.』

다부진 말투였다.

『너, 사람 잘못 봤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꼴 못봐주겠다.』

『네 맘대로는 안될 거다.』

『두고 보마. 후회하는 쪽이 누군가.』

『널 없애겠다. 내 목숨을 걸고.』

『넌 역시 두목질에 이골이 난 놈이구나. 난 네 말을 명심할테니 넌 내말을 잊지마라. 난 두방 이상 쓰지 않는다.』

『어서 나가라.』

도치가 풀리지 않은 육체를 꼬아가며 말했다.

『내가 시범을 보여주고 나가마. 가서 꿇고 와라.』

『잠깐.』

도치가 다급하게 말했다.

『넌 말할 자격이 없어. 어서 꿇어내.』

『잠깐 손님들은 내버려 둬라.』

『난 두마디 않는 놈이라고 했잖아. 아직도 넌 귀가 덜 뚫렸어.』

도치는 앉은 자세에서 재빨리 내 쪽으로 덮쳤다. 그의 손엔 사시미칼이 쥐어져 있었다.

『이 자식이 이거, 돼지려고 진짜 악쓰고 있네.』

손목을 쳐내자 도치는 소파 아래로 굴렀다. 생각같아서는 손목의 혈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런 실력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기는 싫었다.

몇대, 급소를 때렸다. 도치가 댓자로 뻗어 누웠다. 나머지 녀석들은 그 옆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가서 죄다 끌고 와.』

그때까지 내 지시만 기다리던 사내가 방문을 열고 여자와 남창노릇하는 사내들을 끌고 나왔다.

『저쪽 방으로 몰아넣어.』

나는 여자들을 대충 훑어보고 복도 끝방을 가리켰다. 여자들은 그때까지도 속옷차림에 가운만 걸친 채였다. 머리는 속옷마저 입지 않은 채 가운을 걸친 여자도 있었다.

낯 익은 여자들이 눈에 띄었다.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뻔뻔스런 여자들의 얼굴은 신문이나 텔리비전, 잡지 속에서 가끔 낯 간지러운 도덕강의를 하는 여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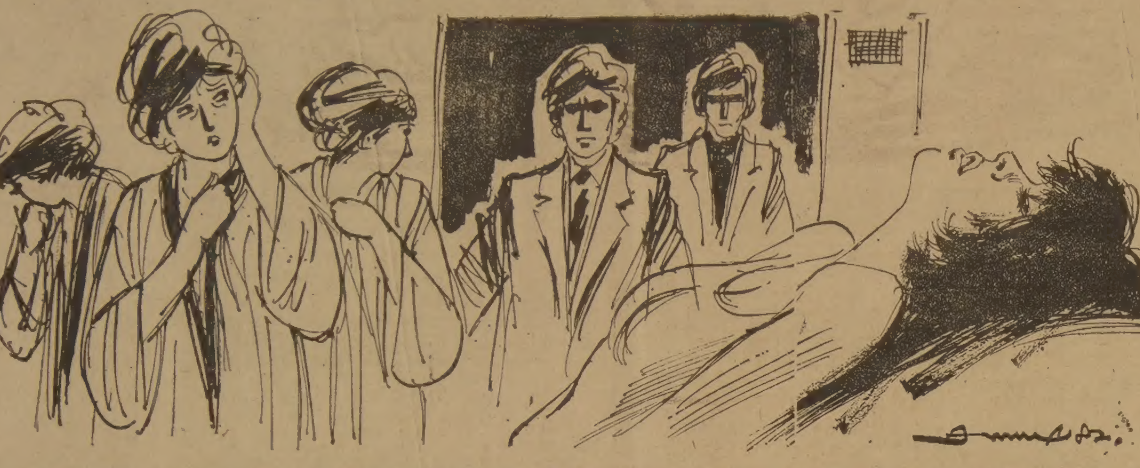
나는 여자들만 모아놓은 방으로 갔다.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고개 들어 이년들아!』

내가 버럭 소리 질렀다. 그런다고 그들이 얼굴을 내밀고 내가 누구라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한 여자만은 아까부터 초연한 척 고개를 들고 나를 빤빤하게 노려봤다.

나는 차마 그 여자에게만은 욕지거리를 할 수 없었다. 남창에 온 여자가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당당할 수 있을까?



『아줌마는 뭐가 그리 자랑스럽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계슈?』

돈을 벌기 위해선 끝까지 男娼業을 하겠다는 거지

너같은게 女性指導者야, 에잇 더럽다 빨리 꺼져버려

내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난 과부예요. 그렇다고 재로 시집가고 싶진 않아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나쁜 짓인 줄은 알지만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여기 단골 손님이 된 여자예요.』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될 것도 없지요.』

『하루에 얼마씩 냅니까?』

『내가 여기 다닐 때부터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당신은 가슈.』

『이 여자들도 같이 가게 해줘요.』

『먼저 나가요. 내가 잡아먹진 않을테니까.』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갔다.

『고개 들어라. 어서!』

내 목소리가 험했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며 얼굴을 들어 따귀를 갈겼다. 여자들은 더 깊숙하게 얼굴을 수그리기만 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않겠읍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 해드릴께요.』

용감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뭘 해주겠다는 거냐?』

『필요하신 거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얼굴은 벽 쪽에 감춘 여자가 또 말을 받았다. 여자들은 용기가 생겼는지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주부도박단으로 걸린 여자들이나 범죄자로 잡힌 여자들이 텔리비전 카메라를 피하듯 벽쪽에 고개는 처박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했다.

『너, 고개 들어.』

나는 제일 뒤쪽에서 고개를 처박고 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더 깊게 머리를 박았다.

『네가 그 잘난 여성운동가지? 가만있자. 그래 네가 이지숙 박사라고하는 년이지?』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얼굴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였다. 여자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가정상담도 했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무슨 단체의 회장질도 하고 있었다.

재작년인가 그 전해인가에는 정숙하고 가정이 원만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여자에게 주는 괜찮은 상도 받은 여자였다.

『내 남편이 알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겠다. 여성운동하는 마누라가 제 길로 들어섰으니 박수치고 상줄 일이구나. 그게 남녀평등이냐? 에이 더러운....』

나는 좋아가 머리끄덩이를 번쩍 치켜 들었다.

『이 년들아 똑바로 봐. 이 여편네가 너희들의 대변자인 이지숙박사라는 년이다.』

그녀는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가운 속으로 늙어서 축 늘어진 육체, 늙으면 누구나 그렇듯 볼상사나운 알몸이 드러났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바지를 잡았다.

『선생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한번만....』

『네가 선생이지 내가 선생이냐? 너 몇살 처먹었지?』

『쉰 여섯입니다.』

『너, 젊었을때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왜놈들 한테 정신대로 팔아먹은 년이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학교 다니면서 위대한 황군을 위해 정신대로 가자고 강연한 거 기억에 없다 이 말이냐?』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옳게 말하지 않으면 확 불어버린다. 네 남편, 네 자식, 네 제자들이 박수치게 해줄까.』

『제발,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하겠읍니다. 부탁입니다. 한번만 살려 주세요.』

『네가 여성지도자라는 게 구역질이 나서 죽겠다. 꽃같은 여학생을 정신대로 넘기고 황국신민 되자고 연설하고 다닌 년들이 지도잡네 하고 소리치며… 남녀평등합네 하며 남창에 들어와서… 에이 더러운.』

나는 이지숙 박사를 방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창피한 것을 잊었는지 내 바지를 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꺼져, 빨리.』

그녀는 허겁지겁 내게 큰 절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너 한번만 더 얼굴 내밀고 헛소리 했다간 볼장 다보는 줄 알아. 집안에 들어박혀서 꼼짝도 마 알았어?』

『네네네, 네네네.』

일본여자처럼 허리를 수그린 채 연진 자발맞은 대답을 했다.

『가서 도치 깨어났나 보구와.』

사내는 재빨리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여자들을 한대씩 더 갈겼다. 얼굴에 손자국이 시뻘겋게 났다.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한 년들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종교 믿는 년 있으면 손 들어봐.』

역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남편 없는 년들 손 들어.』

두 여자가 손을 들었다.

『빨리 꺼져.』

두 여자가 게 걸음으로 방을 빠져 나갔다. 나는 나머지 여자들의 따귀를 두대씩 더 올려 붙였다.

『너희들, 다음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너희들 명단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기어다녀. 집에 가서 발 닦고 남편과 자식들한테 큰절을 한번씩 한다고 맹세하는 년들은 가도 좋다.』

내 말이 떨어지자 여자들은 모두 맹세하겠읍니다란 말을 반복하며 나갔다.

『도치가 일어났어요.』

녀석이 귓속말로 말했다. 나는 소파 있는 곳으로 나왔다.

『방마다 뒤져서 수향이 있나 찾아봐.』

『알았읍니다.』

녀석이 재빨리 복도쪽으로 갔다.

『도치, 너한테 한마디 더 할 게 있다.』

『해라.』

여전히 당당한 대답이었다.

『난 두마디씩 하기 싫은 놈이다. 그건 네가 소문 들어서 더 잘 알거다. 수향이를 내놔라.』

『지금 여기 없다.』

『S주식회사 상속자 성주학은 어디 있지?』

『지금까지 일은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

도치가 나를 진지하게 바라다 보았다.

『경고한다. 수향이 내놔라. 성주학이도.』

『없었던 걸로 하자.』

『두마디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나는 사정없이 도치의 어깻죽지밑을 가격했다. 숨소리가 탁탁 끊어겼다. 지하실을 다 뒤져본 녀석이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나는 도치의 오른손의 혈을 잡았다.

『할수 없지. 네가 세상을 이해하는 수밖에.』

도치는 혈을 잡힌다는게 어떤 형벌인지 그리고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누구 부탁이냐?』

도치가 응어리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 개인적인 문제다.』

『성주학에게 손대지 않는다면 내주겠다.』

『세대는 때려줘야지 않겠나? 사내가 칼을 빼고 나섰는데.』

『좋다. 이 아래 지하실에 있다.』

『여기에 또 비밀 지하실이 있는 줄은 몰랐다. 데려와라.』

『재들 풀어줘라.』

『허튼 것 하면 다 날려버린다.』

『안다.』

男便에 큰절하고 속죄 하겠다면 쾌히 집에 보내주지

밤늦게 형사가 왔다구, 걸릴게 없는데 무엇때문일까

철사줄에서 풀린 두 녀석이 소파를 들어내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성주학과 수면제에 골아떨어진 수향이를 데리고 나왔다.

『성주학, 너 이리와.』

재벌 2세 답게 미끈하게 생긴 녀석이었다. 겁 먹은 얼굴이었지만 당당하게 보이려는 허세가 숨어 있었다.

『도치하고 협상을 했다. 수향이를 데려가고 너는 세대만 때리기로.』

성주학은 도치를 쳐다보고 이내 무릎을 덥석 꿇었다.

『형님! 하란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쇼. 나도 사범니다.』

『오늘은 하란대로 하겠다는 놈 투성이구나. 넌 세대를 맞아야 돼. 애비 믿고 돈만 까불려서 안된다는걸 배워둬야 해. 네 행위로 봐선 밤새 맞고 새벽에 턱이 부서져야겠지만 도치하고 약속 했으니 세대만 맞아. 무릎 꿇고 맞는 거 보다는 서서 맞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다.』

『형님!』

『이 자식아, 난 너같은 동생 둔 적이 없어. 어서 일어나.』

『형님,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나 마나 뻔해. 재벌 새끼답게 돈을 내놓겠다든지 아파트를 한채 준다든지 그거겠지.』

『......』

『이 자식아, 돈 가지고 안되는 게 어떤건지 배우라고 했잖아. 느이 애비한테 이런 거 못배워. 맞는 것도 임마 돈 내고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야.』

『형님, 전 말입니다. 수향이와 결혼할 생각인데 말입니다. 수향이가 ….』

『너 아가리로 재벌 새끼 됐냐?』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너 잔소리 더하면 사타구니를 못 쓰게 만든다.』

녀석은 그 한마디에 입을 봉했다.

나는 녀석을 세워놓고 주먹질을 했다.

성주학은 세대째 맞고는 완전히 뻗어 누웠다. 아마 속으로 살이 들어서 몇달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얘, 물 좀 먹이면 깨어날거다.』

나는 수향이를 메리고 나왔다. 도치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며 말했다.

『두번 다시 오지마라. 그땐 널 끝장 내주겠다.』

『나도 좋아. 내 몸에 박히는 건 싫어하는 놈이다. 그러나 네가 그 장살 계속하는 한 너하고 난 재수없게 만나게 될 거다.』

『두고 보자.』

『네 손님들 명단이 내 손에 있다는걸 잊지마라.』

『뭐라구!』

도치는 호주머니를 만졌다. 도치의 수첩을 내가 들어보였다. 도치가 이를 악물었다.

『널 없앨 거다.』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곤 했다.』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녀석이 수향이를 받아 차에 실었다.

잔솔밭의 끝까지 따라나온 도치가 철푸더기 주저 앉아서 뭐라고 지껄이고 있었다.

바람 빠진 차 옆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차체를 손질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여자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달려라.』

자동차는 골목길로 질주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향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었다.

하나님.

길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다 보고 계셨을테니까요. 남창이란 걸 알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겁니까? 창녀촌도 내버려 두는 데 웬 간소리가 많으냐고 하신다면 할말 없읍니다.

하나님.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읍니다.

미향이가 문앞에 나와 있다가 나를 얼싸 안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괜찮을까요?』

『의사 부를 생각마. 수면제니까 괜찮아. 깨어나면 안정시키도록 해.』

『고마와요 오빠. 내 꼭 신세 갚을 거예요.』

『그런 소리 말고 언니나 잘 보살펴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고.』

『오빠, 정말 고마와요. 꼭 갚을께요.』

『알았다.』

나는 수향이를 데려다 주고 바로 돌아섰다. 그 자리에 오래 있어봤자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자 온주 누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쪽지 한장을 내밀었다.

『형사가 다녀갔다.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나만큼만 무슨 일 없게 살라고 해.』

나는 꼬치꼬치 캐묻는 누나의 말을 피해 내 방으로 건너갔다. 쪽지 속에는 형사의 연락처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연락해봤자 서로 불편할것 같았다. 특별한 일이라면 밤 늦게라도 기다렸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형사가 나를 찾을 만한 일은 없었다. 도치 일은 오늘 밤의 일이었고 다른 일로 형사가 나를 만나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았다.

왠지 꺼림칙했다. 자꾸 마음에 걸렸다. 뒤를 돌아다 보면서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 짚어 보았다. 왜 찾을까?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비플렛
5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아 매니저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입주하셔서 네살난 아이와 1살난 아이 봐주실분 구합니다.
☎ : 242－2064(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경험있는 여자캐셔 구함.
오후4시부터 9시까지(서부지역)
261 Scarlett Rd. ☎ : 767－0762

입주하셔서 애기(2년반)보아주실분 구함.
(더프린 × 스틸)
☎ : 669－5784

아기 맡기실 분은 연락바람
스카브로 센테니엘 병원 앞
☎ : 284－4575(MR. LEE)

아이들(4살, 2살반) 보아주실분
연락바람(서부지역)
☎ : 678－2651

동부지역에있는 가게에 오후7시이후 파타임 캐셔로.
일하고자함 ☎ : 421－6000(EX. 323)오후5시까지
293－6138오후5이후

자동차 메카닉 헬퍼구함.
중앙오토 써비스
☎ : 532－3946

개스스테이션에서 일하실분 급구
가능하면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 환영
☎ : 537－0208 박(아침9시～밤10시까지)

도나스 샾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시간 : 오후4시～12시, 밤12시～오전8시
(FULL 타임)

그리고 도나스 가게를 맡아서 일하실 부부원함
☎ : 531－2689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 : 431－7168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 그로서리·과일가게 ＊
마른음식과 딸꿀들, 좋은 위치이며 주위엔 많은
아파트 빌딩과 집들이 있음.
쉽게 번창할수 있는것임.
연매상 : $170,000
크 기 : 대강 1800 Sq.f.
아스킹 : $24,000＋스탁
리 스 : 5년＋옵션5년
☎ : 425－1255

세탁소 매매
스카보로지역 오전9 : 00～오후3 : 00
☎ : 751－7615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654－7010(Mr. Pucci)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4500, 아스킹
$41,000, 렌트 $400, 리스 1＋5(NO HEATING)
☎ : 221－2084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성업중인 가게급매
$65,000, (KEELE & SHEPPARD)
☎ : 633－7222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nforth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해밀톤 아파트 조밀지역에 전망좋은 과일가게를
개인사정으로 매매코자함.
☎ : 1－525－1326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매매 부동산

특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아 십 니 까 ? 아십니까 ?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 찬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에어콘·히팅·냉장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번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님파·김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영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기 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토요일도 광고접수
10:00 a.m.－5:00 p.m.
☎ : 533－2361～4

현명한 광고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流星의 賦
風雅와 簒謀 ㉘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수길은 고민한 끝에 히데쓰구를 후시미성(伏見城)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히데쓰구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내 생각으론 일본국(日本國)을 다섯개로 분할하으면 한다. 그 가운데 네개는 너에게 주겠다. 나머지 하나는 히데요리에게 주어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수길은 히데쓰구의 표정을 살폈다. 수길은 히데쓰구를 이미 후계자로 결정한바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 거북한것을 겨우 꺼냈던 것인데 히데쓰구는 수길의 그런 마음엔 아랑곳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길은 히데쓰구가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했다. 관백직(關白職)에서 물러나겠다, 양사자(養嗣子)로서 사양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수길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히데쓰구는 둔감한 탓인지, 뻔뻔스러운 탓인지 아무말 않고 있다가
『아버지 좋으실대로 하시오』
했는데 그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되려 [illegible]가 있었다. 수길은 [illegible]
『이 천하가 누구의 천하인가』
하고 불통을 터뜨렸으면 하는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가까스로 참고 훈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훈계를 하는 태도에 불손함이 엿보였다.
(이놈 변했구나)
싶었지만, 노여움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다. [illegible] 죽은 후 히데요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히데쓰구 밖에 없다는 사실이 늙은 수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수길은 하나의 안(案)을 생각해냈다. 히데쓰구에겐 딸이 있었다. 그 딸을 히데요리의 아내로 하자는 안이었다. 탄생한지 아직 얼마 안되는 히데요리의 배우자를 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놓아야 안심이 되겠다는 수길의 심정이었다.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 당장 히데쓰구를 부르려고 했다.
『그렇게 서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측근이 말렸는데도 수길은 급사(急使)를 파견했다. 그때 히데쓰구는 두통을 고치기위해 아따미온천(熱海溫泉)에 있었는데 수길의 편지를 펴보니 내용이란 그것 뿐이었다.
『알았다고 말씀 드려라』
히데쓰구의 말이었다.
사자는 후시미로 돌아가 수길에게 보고했다.
『그말 뿐이더냐』
수길의 얼굴은 불만스러웠다. [illegible] 히데요리 성인후(成人後)엔 천하를 넘겨주[illegible] 관백과 양사자의 자리를 사양한다고 까진 못하[illegible]는 한마디쯤 있어도 될게 아닌가.
(그놈은 정이없는 놈이다)
수길은 불만스러웠고 불쾌했다.
이런일이 있은 직후 기쿠떼이(菊亭)가 후시[illegible]와서 히데쓰구의 [illegible] 사실을 [illegible] 올리며 [illegible] 했다.
「그 머저리 같은 놈이 설마」
하면서도 수길은 히데쓰구의 사행(私行)을 조[illegible]도록 명령을 내렸다. 조사를 담당한 자는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와 나쓰까마사이에(長束正家)이[illegible] 히데쓰구의 엄청난 비행이 속속 드러났다. 수길은 기절할만큼 놀랐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짐승이다」
수길은 히데쓰구를 그렇게 규정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